

Asian Games  
INCHEON 201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1주년 기념』

#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2008년 4월 17일 (목요일) 18:00~21: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SBS라디오 특집공개방송[103.5MHz]  
‘배철수, 전영미의 와와쇼’

SS501, V.O.S, 박혜경, 스위트소로우  
추가열, 주현미, 퓨전여성전자현악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08. 4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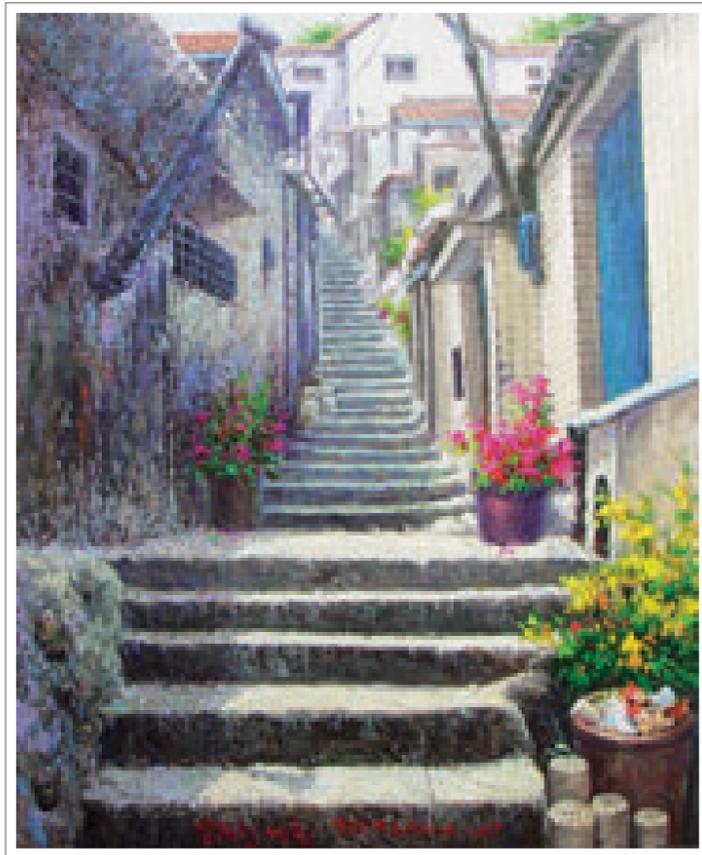
INCHEON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인천광역시

# 잊혀진 세월



김중은 作 · 65.2cm×53.0cm · Oil on Canvas · 2007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그 중에서도 동구의 '옛 수도국산' 가는 길은 작가에게는 아픈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다. 어린시절, 몸도 불편하신 어머니가 가끔 나오는 수돗물을 받으러 다니시던 작은 골목, 그리고 그 사이로 난 좁은 언덕길. 그 모두가 때로는 정겹고 그리워지기도 한다. 지금도 어렵듯이 그 흔적이 남아 있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면 가끔 가보곤 한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화폭에 담아 보았다. - 김중은

#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4

## CONTENTS

April 2008 통권 172호



표지에 담는다  
세계 명품도시 ④ 일본 도쿄

### Fly Incheon\_

- 08 이달의窓
- 16 파이팅 인천
- 22 Fly Incheon News
- 24 군·구 소식
- 26 시의회 소식
- 28 시의회 Zoom in
-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④
-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송도의 미래, 찬란하다  
비룡, 신화는 계속된다!  
'진대제 前 장관, 엑스포 새 사령탑' 외  
'중구, 행복한 도시대상 수상' 외  
'정책토론회서 시민의견 수렴' 외  
자전거가 달리는, 녹색도시 인천  
시스템 도시의 표본, 도쿄  
인천경제자유구역

### Incheon Life\_

- 04 인천의 사월
- 10 2009인천방문의 해
- 12 시티투어
- 18 막스막下
- 30 브리핑
- 32 Eduport Incheon
- 34 Healty Life 건강백세
- 40 인천을 걷다
- 46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48 동서남북
- 52 Info Box
- 59 지상(誌上) 박물관

동네 곳곳에서 순백의 쇼 펼친다  
Come Together, Fly Incheon  
인천 명소 한 번에 유람하기  
'불멸의 처' 외  
영어가 자유로운도시 인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우울증  
삼산동 골포천 한바퀴  
아내가 남편명의 차용증을 교부한 경우  
인천소비생활센터  
'시정현장견학 참가자 모집합니다' 외  
학교고인돌

### Incheoner\_

- 27 모닝인터뷰
- 21 모닝커피 한 잔
- 35 김치찰락
- 44 인천역사 책갈피
- 47 만나고 싶었습니다
- 50 독자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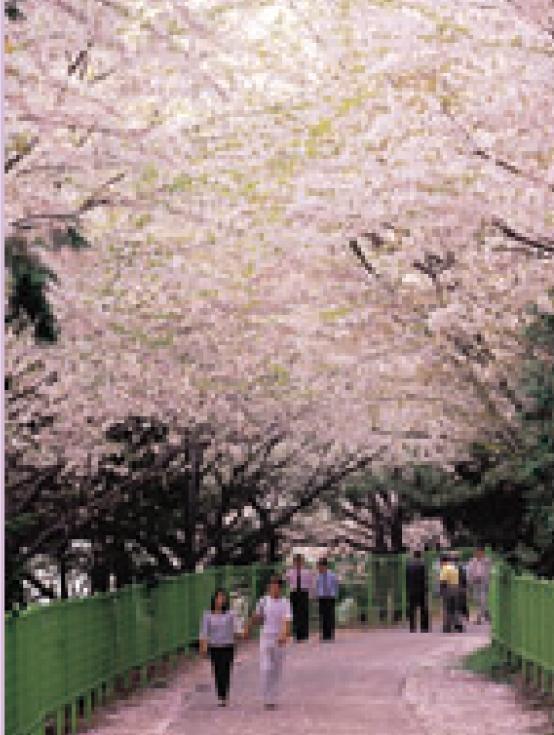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  
진정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딸 아이의 봄' 외  
'중앙'에 밀린 방송 사각지대  
여성 의용소방대장 고춘자 씨  
'꽃 중에 꽃 무궁화'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4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2
	3

- 1. 자유공원
- 2. 월미산 산책로
- 3. 만개한 벚꽃

인천의 사월 | 시내 벚꽃놀이

# 동네 곳곳에서 순백의 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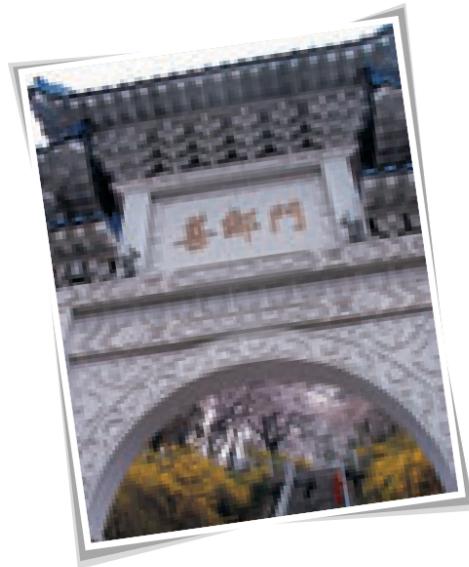
봄은 색깔로 우리 곁에 온다. 겨우내 칙칙한 무채색으로 잠들어 있던 산과 들에 초록색 바탕색이 칠해지고 그 위에 노랑, 빨강, 하양... 온갖 색이 입혀진다. 하얀 벚꽃은 봄꽃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휘저어 놓는 꽃이다. 팝콘 터지듯 한꺼번에 펄펄 피어나 왕성한 자연의 활력을 몸짓으로 전해 준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진**해 균형제, 여의도 윤중로, 화개장터 벚꽃놀이, 강릉 경포호...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나라 벚꽃잔치 명소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화사한 봄을 맞기에는 교통 혼잡 등 많은 단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인천에도 하늘을 가릴 만큼 무수히 피어난 벚꽃이 천상화원(天上花園)을 이루며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명소가 있다. 올봄은 동네 근처에서 호젓하게 벚꽃 쇼를 즐겨보자.

## 순환산책길의 벚꽃터널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1897년 조성)이란 타이틀이 붙은 자유공원. 그 연조에 걸맞게 그곳의 벚나무 나이테도 촘촘하다. 40년 가까이 된 벚나무 500여 그루가 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근처 등에 빼곡하다. 특히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산보하는 순환산책길의 벚꽃터널은 자유공원의 백미. 북성동 차이나타운 입구에 세워진 하얀 패루와 백색 벚꽃의 조화는 그야말로 '달력 사진' 감이다.



### 피비우스 띠처럼 이어진 벚꽃사열 월미산

월미도의 벚꽃은 우리나라 현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하며 피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 월미도는 벚꽃놀이 임시관광열차가 편성될 정도로 최고의 벚꽃놀이 명소였다. 6·25 전쟁 중에는 포탄 세례로 섬이 몇 번 뒤집히면서 풀 한포기도 없는 민둥산이 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군부대가 자리잡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월미도는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 몇해 전에 월미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벚꽃나들이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월미공원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벚꽃 사열은 산 중턱의 산책로를 따라 피비우스 띠처럼 끊어지지 않고 월미산을 둘러 감싸고 있다. 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자유공원 쪽을 보면 벚나무 숲이 마치 솜사탕 덩어리처럼 보인다.

### 가족들의 꽃놀이 명소 인천대공원

사시사철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대공원은 특히 벚꽃 피는 사월이 으뜸이다. 자전거 광장에서 호수 삼거리를 거쳐 공원 후문에 이르는 1.5km 산책로에는 서른살을 훌쩍 넘긴 벚나무 700여 그루가 꽃터널을 이룬다. 길이 평탄해 어르신과 어린이 등 가족들이 꽃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후문을 통해 만의골로 나가면 관모산과 소래산 사이에 난 호젓한 꽃길이 이어진다.



### 꽃구름에 실린 밤벚꽃 수봉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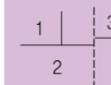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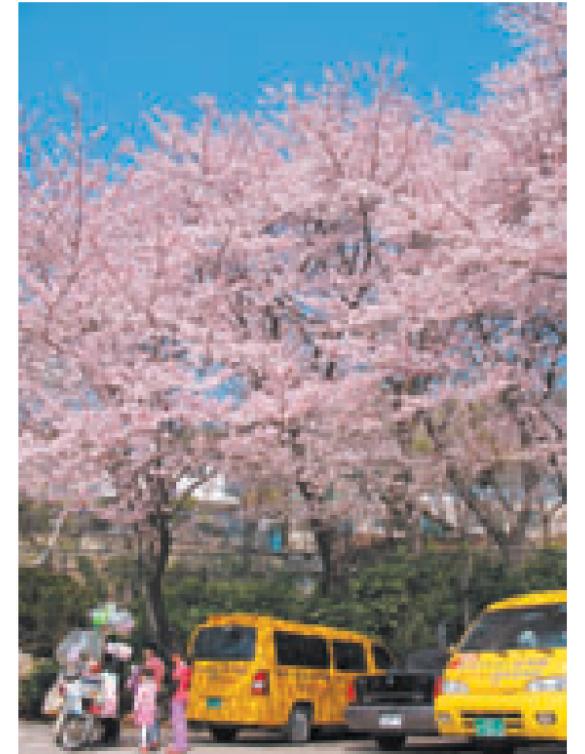
도심 한복판에 봉긋 솟은 수봉산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산보하듯 알찬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곳곳에 한아름 넘는 벚나무가 등지를 틀고 있으며 특히 산 정상에 이르는 계단 옆으로 벚나무 가지들이 꽃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밤이면 가로등 불빛에 물든 벚꽃이 마치 꽃구름에 실린 것처럼 운치를 더한다.

### 벚나무 그늘에서 먹는 도시락의 맛 청학동

문학산 남쪽 양지바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 마을은 4월이 되면 눈을 흠뻑 맞은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동네 입구부터 보광사에 이르는 길 양편으로 순백의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고 청학플aza 앞 공터에 있는 아름답디 벚나무들은 황홀한 꽃비를 흩뿌린다. 벚꽃이 피는 기간에 청학플aza가 무료로 개방되는데 벚나무 그늘 아래서 도시락을 먹는 맛은 꿀맛이다.

### 그밖에...

구월주공아파트는 한때 전국의 아파트단지 중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핀 동네로 손꼽혔다. 단지 전체가 재건축되면서 20년 생 벚나무 500여 그루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시공사에서 일부를 옮겨 심어놓아 아쉬운 대로 벚꽃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힐스테이트아파트 담장과 길병원 사잇길에 벚꽃행렬이 도시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그밖에 구월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고속도로 입구에 이르는 남동로의 양쪽과 연수동 적십자병원 담장길 그리고 도화동 인천대 정문길에도 벚꽃이 만발한다. 🍡



1. 차이나타운의 톨패루 선린문
2. 인천대공원
3. 청학플aza 앞마당



### 섬에서 즐기는 '지각' 벚꽃놀이

섬 벚꽃은 육지보다 약 열흘 정도 늦게 피기 때문에 물에서 벚꽃놀이를 놓친 이들을 위해 '애프터 서비스'를 펼친다. 옹진군 신도의 구봉산(해발 178m)에는 7천300여 그루의 산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4월 말까지 벚꽃 천지가 된다. 구봉산 정상은 마을에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1시간 여 만에 다다를 수 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쉬엄쉬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바다도 꽃 바다가 된다. 장봉도에 있는 지체장애인시설 해림원은 주변 풍경이 멋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원내 곳곳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소풍 겸 봉사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벚꽃잔치는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한 폭의 유희를 보는 듯 하다. 강화군 온수리에 있는 강남고등학교엔 사진은 강화에서 손꼽는 벚꽃 명소이다. 교정을 거닐며 벚꽃을 감상하다 보면 잠시나마 학창시절의 추억에 빠진다. 밤에는 벚나무를 청사초롱으로 밝혀 밤 벚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고려궁지 입구에서부터 북문에 이르는 언덕길도 강화 벚꽃놀이의 단골 장소이다.

# Global Leading u-City, IFEZ



## 송도의 미래 찬란하다

상상하지 못했다. 바다가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그 위에 도시가 세워질 줄은. 하지만 거대한 송도의 꿈은 속속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업무단지에 관심을 표명한 조지 H.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최근 공사에 착수한 투머로우 시티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찬란한 내일을 그려본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하장원 시 공보관실 게일 인터내셔널

### Songdo Tomorrow City

- 국제 물류·비즈니스·지식정보산업의 거점이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완벽한 자동화·정보화 서비스가 이뤄지는 유비쿼터스 시티. 바로 머지않아 만나게 될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다.
- 송도가 거대한 미래도시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7일 '투머로우 시티(Tomorrow City)' 기공식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있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및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이 사업을 소개하고 u-City 석학들이 축사를 전하는 등 첨단 미래도시에 걸맞은 차별화된 행사가 진행됐다.

투머로우 시티는 송도국제도시 E6-1부지에 u-City 홍보체험관, 복합환승센터, u-광장, u-Mall 등을 갖추어 3만 1천697㎡의 규모로 조성되며, 유비쿼터스 기술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자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핵심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투머로우 시티의 시공은 SK텔레콤과 신세계건설, 농협 등 16개사가 참여한 SKT 컨소시엄이 맡고 총 1천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안상수 시장은 “송도국제도시 중심 환승센터에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장착한 투머로우 시티를 만들 계획”이라며 “시민과 국민들에게 미래 유비쿼터스 시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994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송도국제도시는 2020년이면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자동화·정보화 서비스가 이뤄지는 첨단 유비쿼터스 시티로 우뚝 설 것이다. 이제, 송도에 세계의 시선이 머물 날이 멀지 않았다.

### Exciting Future!

조지 H. 부시 전(前) 미국대통령이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관심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계 개발사업자 게일 인터내셔널을 방문했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이날 스탠 게일(Stanley C. Gale) 게일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의 진행사항과 비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시의 계획에 따라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가 개발 중인 송도국제업무단지는 2014년까지 총 250억 달러를 투입해 업무와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571만㎡ 규모의 첨단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1	2
—	3

1·2. 첨단 유비쿼터스 시티의 비전을 제시할 투머로우 시티의 기공식  
3.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관심을 표명한 조지 H. 부시 전 미국대통령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를 보고받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나는 원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Big Thinker)을 존경한다”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비전으로 건설적인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스탠 게일 회장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과 같은 명망 높은 글로벌 리더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인천대교가 완공되고, 송도국제업무단지가 1단계로 문을 여는 내년 8월 다시 한번 방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hanks for the glimpse into an exciting future. Good luck to all(도전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게일사의 방명록에 남긴 글귀다. 그의 말대로 송도국제도시의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며 세계의 허브로 눈부시게 도약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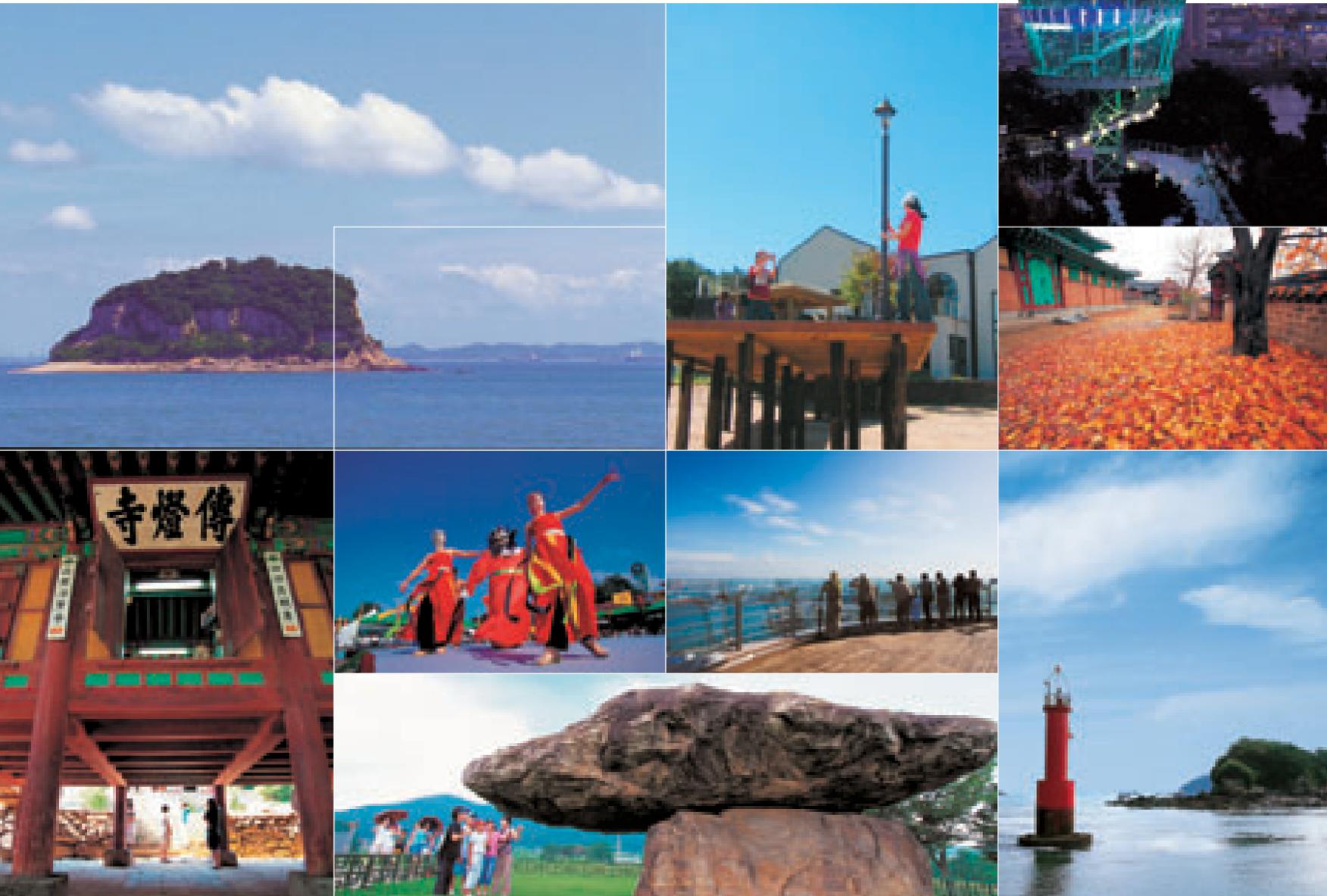


# Come Together, Fly Incheon



2009년 인천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09년은 인천방문의 해'로 선정된 우리시는 '최초·최고의 역사관광자원을 볼 수 있는 곳, 명품 관광이 있는 곳, 스포츠와 레저 마니아가 오면 언제나 즐거운 곳, 인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관광객의 발길을 인천으로 돌릴 예정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2009 '관광 인천' 으로 도약하는 해

2009년은 우리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인천대교 준공, 관광전차 개통, 근대 개항기 각국 영사관 등 건축물의 복원, 그리고 해양과학관의 준공... 이 모든 것이 2009년에 일어날 일들이다. 게다가 세계적 테마파크가 조성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많이 늘어나고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교통체계 개선 등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갖춰진다. 이렇듯 관광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지는 2009년, 우리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인들을 초대한다.

우리 인천은 제물포 구락부, 각국 영사관 등 개항기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 또 강화고인돌, 전적지, 참성단, 고려궁지, 선원사지 등 역사문화 자원도 풍성하다. 록페스티벌, 해양축제, 중국의날축제 등 해마다 26개에 이르는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고 여기에 갯벌습지 및 철새도래지, 여러 섬과 해변, 해양자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이처럼 훌륭한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인천은 외국 여행객들이 여행목적지로 인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시의 여러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9인천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인천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인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시는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천의 최초·최고라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통한 인천 알리기, 첨단 미래도시 명품인천 알리기, 스포츠·레저·축제 등 특별함을 추구하는 마니아 대상 인천 알리기 등을 3대 전략방안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도 정했다. 아주 특별한 관광 상품개발, 2009인천방문의 해 선포식 등 대대적인 홍보사업, 관광객들이 인천에 오면 편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관광객의 편의증진사업,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우리고장 인천 먼저보기 사업 등 43개 사업이다.

근대 개항기 역사 및 월미도 지역을 돌아보는 월미달빛누리 사업, 수학여행담당교사·외향선원·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팸투어 사업, 시내권·공항권·강화권 등 테마별로 운행하는 시티투어 사업 등도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IFEZ아트센터 건립, 강화갯벌센터 체험장 조성, 강화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 송도유원지 재정비, 무의아트센터 건립, 군사보호구역이었던 팔미도 개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인천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관광은 여행산업이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관광하기 좋은 도시는 교통이 체계적으로 소통되고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도 편한 곳, 투자가치가 있는 곳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인천방문의 해를 통해 2014 아시안게임을 훌륭히 치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삼색별 손님 맞이 한다



인천방문의 해 심볼마크가 결정됐다.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Quality(우수성)의 Q자를 형상화했다. 원 안의 별은 첨단 미래도시 인천의 꿈을 상징하며 원안으로 그려진 선은 인천 방문을 권유하는 의미다. 또 노랑(희망)과 파랑(꿈), 빨강(열정) 등 삼색이 서로 융합되도록 했다. 슬로건은 'Come Together, Fly Incheon (함께 오세요, 도약하는 인천으로)'으로 결정했다. 별 모양의 캐릭터도 만들었다. 하늘의 희망을 상징하는 노랑별, 바다와 푸르른 꿈의 파랑별, 첨단 도시와 열정을 상징하는 빨강별 등 세 개의 별이 인천을 빛낸다.

# '강추' 인천 명소

## 한 번에 유람하기

인천 구석구석을 한눈에 돌아 볼 수 있는 인천시티투어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대형 관광버스를 개조해 쾌적한 28인승 차량으로 바꾸고 코스도 새롭게 짰다. 차에 오르면 비행기 좌석이 부럽지 않다. 널찍널찍한 좌석에 팔걸이와 발받침대도 편안하지만 하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시티투어가 운행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수요일 정오, 시티투어의 출발지인 인천역 앞의 관광안내소는 표를 사기 위한 어르신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울목동에 오래 살았다는 김만수 어르신(74세)은 시티투어 단골 고객이다. 일년이면 서너 차례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인천을 유람하는데 올해는 또 많이 달라져서 기대가 된다며 인천대공원에 내려 점심도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올 계획이란다.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버스에 오른 연세 지긋한 어르신은 연안부두에 불일이 있다신다. 버스 운행을 맡은 김승기 기사는 연안부두에 도착하면 알려드릴테니 일 보시고 2시간 후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버스를 타시라며 친절히 알려준다.

출발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28인승 버스의 좌석이 꽉 찼다. 시티투어 명찰을 단 버스가 스르르 인천역을 미끄러져 나가자 어느새 차 안에 설치된 TV화면에서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에피타이저처럼 흘러나온다. 영화처럼 감미로운 영상을 보며 편안한 버스 좌석에 몸을 맡기노라면 어느새 인천유람의 시작이다.

TV와 안내방송으로 인천을 알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인천의 풍광을 감상하노라면 3시간 10분이 결코 길지 않다. 물론 기사에게 미리 내리기를 원하는 곳을 이야기 하고 그곳을 즐기다 2시간 후에 다시 탑승해 마저 인천을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쉽고 편하게 인천을 즐길 수 있다니... 참 좋다... 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5 강서관광 ☎ 772-4000  
\* 코스별 시간표는 본지 55쪽 참고



### 시내코스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는 시내관광코스는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인천역을 출발해 3시간 10분 만에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온다. 요금은 1,500원.(청소년은 50%할인) 하루 4회 운행.

- 1 인천역(출발)
- 2 파라다이스호텔, 한중문화관
- 3 월미도
- 4 인천항(갑문)
- 5 월미전통정원(월미산), 인천항(내항)
- 6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 7 연안종합어시장(해수탕)
- 8 인스파월드
- 9 능허대
- 10 상륙작전기념관, 시립박물관
- 11 송도유원지
- 12 라마다 송도호텔
- 13 송도컨벤시아(국제컨벤션센터)
- 14 송도갯벌타워
- 15 소래포구
- 16 남동구청
- 17 인천대공원
- 18 물홍보관
- 19 로얄관광호텔
- 20 인천광역시청
- 21 종합문화예술회관
- 22 인천터미널
- 23 문학경기장, 도호부청사
- 24 인하대학교
- 25 용현시장
- 26 수도권산박물관(중앙시장)
- 27 화도진공원
- 인천역(도착)



### 추적으로 들어가기

- 시내코스는 옛 인천과 현재의 인천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추억에 젖어 보기에 좋다. 시내코스를 타고 돌아다 버스에서 내려 둘러봐야 할 곳 best 5.
- 2 한중문화관** : 중국 전통복장을 입어보고 전통차를 음미하며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주말에 무료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색다른 체험
- 5 월미전통정원(월미산)** : 공궤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미도의 역사적 의미가 깃든 공간으로 행궁(行宮)이 있던 조선시대의 정원양식을 재현했다.
- 14 송도갯벌타워** : 송도국제도시, 영종공항도시, 청라지구의 미래모습과 비전을 보여주는 홍보관이 21층에 자리잡고 있다.
- 17 인천대공원** : 식물원, 정미원, 조각공원, 인공호수 등이 있는 인천시민의 쉼터. 철마다 축제가 펼쳐져 언제 찾아도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 26 수도권산박물관** : 1960년대 달동네의 삶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 골목골목 이어지는 집들을 누비며 옛 놀이를 해보고, 연탄불을 갈아보는 체험이 그때 그 시절의 향수에 젖게 한다.

# 공항코스

인천국제공항코스는 매일 아침 9시 45분 인천역을 출발해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여섯 차례 운행된다. 요금은 6,000원(청소년 3,000원), 코스를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55분.

- ① 인천역(출발) - ② 월미도 - ③ 구름베타(영종도 선착장) - ④ 과학상설전시관 - ⑤ 해수탕 - ⑥ 공항여객터미널3층(13번 게이트) - ⑦ 하얏트, 베스트웨스턴호텔 - ⑧ 거잠포입구(무의도) - ⑨ 마시란 해변 - ⑩ 선녀바위 - ⑪ 을왕리해수욕장 - ⑫ 왕산해수욕장 - ⑬ 복죽방조제(갑문) - ⑭ 삼목선착장입구(시도, 신도, 장봉도) - ⑮ 영종대교 - ⑯ 국립생물자원관 - ⑰ 청라홍보관(자유구역 홍보관) - 인천역(도착)



## 바다 구경하고 우리 아이 체험 코스로 딱

공항코스는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 코스에는 여러 전시관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 교육과 체험여행을 하기 안성맞춤이다.

**④ 과학상설전시관** : 체험과 견학으로 자연현상과 과학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 190여 종의 과학 및 자연전시물들이 있어 하루 종일 과학과 놀고 즐길 수 있다.

**⑥ 공항 여객터미널 3층** : 연간 17만회의 운항으로 여객 2천 700만명과 화물 170만톤을 소화해 낸다. 교통센터 2층의 스타가든은 여느 식물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즐길거리로도 안성맞춤

**⑨⑩⑪⑫ 마시란해변, 선녀바위, 을왕리·왕산해수욕장** : 용유도의 그림 같은 해변과 바위들.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다른 계절에는 낭만을 즐기는 이들로 북적인다.

**⑯ 국립생물자원관** : 한반도 고유생물 및 자생생물 표본 985종 4천600여점을 전시하고 있는 동양최대의 생물관.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돼 생물 교육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⑰ 청라홍보관** : 청라국제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 청라지구의 개발 계획과 미래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관람하고 2층에서는 청라지구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모형들을 체험할 수 있다.

# 역사체험 강화코스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강화 테마관광코스는 문화유산해설사가 동승해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만 A·B 두 코스로 운행된다. 요금은 1만원(청소년 5천원). 관광지 입장료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시티투어 티켓을 보여주면 모든 관광지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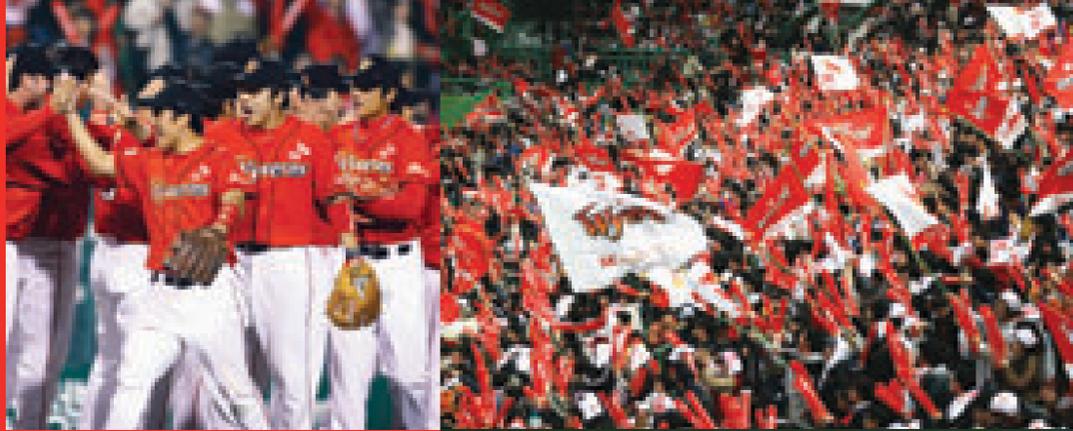
- A코스 (09:30~18:30) : ① 인천역(출발) - ② 연미정 - ③ 화문석박물관 - ④ 제적봉안보관광지 - ⑤ 고인돌 - ⑥ 고려궁지 - ⑦ 선원사지 - ⑧ 강화역사관 - ⑨ 인삼센터 - 인천역(도착)
- B코스 (10:00~19:00) : ① 인천역(출발) - ② 초지진 - ③ 전등사 - ④ 동막해변 - ⑤ 강화갯벌센터 - ⑥ 장곶돈대, 낙조조망지 - ⑦ 농경문화관 - ⑧ 덕진진 - ⑨ 광성보 - 인천역(도착)



# 비룡, 신화는 계속된다

2007년 가을을 기억한다. 인천 SK 와이번스가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구도 인천의 꿈이 이뤄지고 270만 시민이 하나 된 감격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비룡의 화려하고 거침없는 비상은 계속된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SK 와이번스



## 그대들은 진정한 챔피언

지난해 10월 29일, 2007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가 열린 문학경기장은 붉은 물결로 넘실댔다.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인 SK 와이번스가 200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면서, 구도(球都) 인천의 영광이 재현되고 270만 시민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올해에도 비룡군단의 위풍당당한 행보는 계속 된다. SK 와이번스는 지난 1월, 지난 시즌 눈부시게 활약한 선수 41명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주요 선수는 팀의 에이스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케니 레이번 (Rayborn Kenneth), 2개의

홈런으로 '가을동화'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한 조동화, 시즌 내내 차원 높은 외야수비와 공격력을 선보인 박재상 등이다. 외국인 선수로는 우완투수 다윈 쿠비얀(Darwin Cubillan)을 영입했다. 토론토, 텍사스, 몬트리올 등에서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쿠비얀은 안정감 있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도 신인선수들도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 전체 지명자 8명 중 1차 지명 선수인 동산고 투수 황건주를 비롯해 모두 7명의 선수가 SK 와이번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

SK 와이번스의 강점은 1군용 투수들이 15명 가량 될 정도로 마운드가 탄탄하다는 것이다. 선발진 레이번과 쿠비얀을 시작으로 3~5선발은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와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4승을 따낸 김광현을 비롯해 채병룡, 이승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펜도 마무리 정대현과 조웅천, 윤길현, 가득염 등 핵심 선수들로 빈틈이 없다.

## 2008 시즌도 비룡은 비상한다

SK 와이번스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본 고지와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열고 한국시리즈 2연패를 향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모두 73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캠프는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실전 위주의 기량점검으로 팀 전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비룡군단의 챔피언다운 면모는 시범경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SK 와이번스는 3승 8패의 예상치 못한 성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김성근 감독은 "시범경기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다.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면 팀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여유를 보여 '역시 SK 와이번스'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지난 3월 29일, 한국 프로야구 2008 시즌 페넌트레이스가 15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프로야구가 3월에 개막하는 것은 지난 1986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008 시즌 경기는 팀당 126경기, 팀간 18차전으로 모두 504건이며 개막경기는 2007 시즌 1, 2, 3, 4위 팀의 구장인 문학(SK-LG), 잠실(두산-우리), 대전(한화-롯데), 대구(삼성-KIA)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승부제가 폐지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그리고 구단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한화, 삼성, 우리, KIA 구단은 관중 3만 명 이상의 수용규모를 갖춘 잠실, 문학, 사직구장에서 일·공휴일에 한 번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불꽃같은 열정으로 인천의 이름을 빛내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확인 시켜준 SK 와이번스. 2008년 역시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 야구의 역사가 새로 쓰여 질 것이다. 그렇다. 비룡의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 인천 SK 와이번스 4월 홈경기 일정

날짜	상대팀	시간	날짜	상대팀	시간
4일(금)	두산	18시 30분	22일(화)	롯데	18시 30분
5일(토)	두산	14시 00분	23일(수)	롯데	18시 30분
6일(일)	두산	14시 00분	24일(목)	롯데	18시 30분
15일(화)	삼성	18시 30분	25일(금)	KIA	18시 30분
16일(수)	삼성	18시 30분	26일(토)	KIA	14시 00분
17일(목)	삼성	18시 30분	27일(일)	KIA	14시 00분

문의 | 한국 야구위원회 ☎ 02-3460-4600 www.koreabaseball.com



# 막상막下

이달의 공연

## 창작연희극 동벼락



극단 민들레의 '동벼락'은 우리 전통 문화의 요소가 듬뿍 녹아있는 작품으로 판소리를 토대로 우리의 전통 요소를 결합시킨 작품이다. 판소리와 민요를 축으로 탈춤과 꼭두극 그리고 길고랭이 등 민속놀이, 춤과 마임이 함께 녹아있어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다.

일시 \_ 4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공연장

티켓 \_ 전석 무료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777-9140~8

## 시립극단 불멸의 처



고려 말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극작가 이원경 선생의 원작을 시립극단 이종훈 예술감독이 연출한다.

〈불멸의 처〉는 고려 말을 시대 배경으로 왕과 왕비의 사랑을 애잔한 아름다움으로 그려내고, 범패의식과 바라, 승무 등이 절제된 화려함을 보여준다. 특히 노국공주의 심정을 표현한 무용은 대사 형식을 벗어나 행위만으로 무대와 관객이 숨죽이며 소통하는 공연의 백미를 선사한다.

일시 \_ 4월 11일(금)~20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_ 인천시립극단 ☎ 420-2790

## 시립무용단 I-Dance 2008 天告



인천시립무용단의 춤마당·흥마당이 'i-dance2008'로 재탄생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보인다. 두 번째 I-dance는 생동하는 4월의 약진하는 기운을 담은 사물놀이 한판이다.

이 한판이다. 시립무용단 사물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타악의 흥겹고 진한 소리를 전해줄 이번 공연은 봄의 생명력, 그 터질듯한 기운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_ 4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 레게음악 파프리카



레게의 부산물로 파생된 덤은 각 악기의 다양한 믹스와 효과음, 특히 에코와 반향음을 특징으로 한다. 쉽게 말해 '레게'와 '트립합' 사이에 존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음악=휴식'이라는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음악이다. 몽환적이며 최면성이 강해 복잡한 세상의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시 \_ 4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4월 상영작

빨간풍선

허우 사오시엔과 줄리엣 비노쉬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작품. 목소리 연기자 수잔과 아들 시몽, 베이비시터 송팡의 이야기를 통해 동서양을 초월한 인간 관계를 조명하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영화.

모차르트와 돌고래

자폐증을 가진 주인공들을 통해 세상에서 고립된 이들의 아픔과 욕망, '정신'과 '비정상'을 나누는 사회의 편견을 보여주는 산뜻한 휴먼로맨스드라마.

터질거야

감독의 자기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따분한 영화를 보다 못한 열혈 관객이 영화제작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유쾌한 풍자 코미디.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 태안 앞바다 살리기 해양생물 특별전

한중문화관은 4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1층 기획전실에서 '태안 앞바다 살리기 해양생물 특별전'을 연다. 전시회에는 고래상어, 어패류 70종, 갑각류 25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전시된다. 한중문화관 ☎ 760-7860

4월 11일 ~ 17일 : 인화공전개교 50주년기념학생작품전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4월 11일 ~ 24일 : 가천박물관 소장 국보·보물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4월 18일 ~ 24일 : 2008 제5회 인천미술한마당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4월 18일 ~ 28일 : 봄맞이 생활자기전 / 신세계갤러리

4월 25일 ~ 30일 : 남동구문화예술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4월 25일 ~ 30일 : 제10회 예유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4월 25일 ~ 30일 : 제6회 인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월	1	<p><b>2 B-boy와 함께하는 알라딘</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9시 30분, 11시 오후 1시 30분 / 2만원 우성예술 ☎ 02-2203-2584</p> <p><b>인천폴리스 플롯앙상블 정기연주회</b> 커피콘서트 IV 문훈숙의 해설과 함께하는 발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 032-420-2027~8</p>	<p><b>3 시립교향악단 제283회 정기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7천원 ☎ 032-420-2781</p> <p><b>인천폴리스 플롯앙상블 정기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032-438-6431</p> <p><b>인천연극제 참가 &lt;우리들의 행복한 시간&gt;</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 ☎ 017-249-3231</p>	<p><b>4 우리의 소리 - 김경아 '총합가'</b>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전석 1,500원 ☎ 505-5995</p>	<p><b>5 컬투 CRAZY SHOW</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5만5천원 정라이프 ☎ 1566-6551</p> <p><b>인천 ENZIAN 요물클럽 정기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 017-244-3442</p> <p><b>인천연극제 참가 &lt;우리들의 행복한 시간&gt;</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4시, 7시 30분 / 1만2천원 7천원 / ☎ 017-249-3231</p>	<p><b>6 컬투 CRAZY SHOW</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 30분 / 5만5천원 정라이프 ☎ 1566-6551</p> <p><b>제8회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 무료 ☎ 032-875-4644</p> <p><b>인천연극제 참가 &lt;우리들의 행복한 시간&gt;</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오후 4시 / 1만2천원, 7천원 ☎ 017-249-3231</p>
		<p><b>9 제26회 전국연극제</b> 일시 : 5월 1일(목)~6월 11일(수)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문의 : 전국연극제 상황실 ☎ 032-874-3179</p>	<p><b>11 미추홀오페라단(사랑의묘약)</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 032-435-1281</p> <p><b>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사천극 변검 - 중국 기예단</b>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전석 1,500원 ☎ 505-5995</p>	<p><b>12 미추홀오페라단(사랑의묘약)</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 032-435-1281</p> <p><b>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중국기예와 변검</b>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p>	<p><b>13 미추홀오페라단(사랑의묘약)</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 032-435-1281</p> <p><b>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중국기예와 변검</b>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p>	
14	<p><b>15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어린이 마당놀이 - 도깨비 잔치</b> 부평문화사랑방 /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 3천원 ☎ 505-5995</p>	<p><b>16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어린이 마당놀이 - 도깨비 잔치</b> 부평문화사랑방 /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 3천원 ☎ 505-5995</p>	<p><b>17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어린이 마당놀이 - 도깨비 잔치</b> 부평문화사랑방 / 오전 10시 30분 오후 4시 / 3천원 ☎ 505-5995</p>	<p><b>18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콘트라베이스 앙상블</b>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전석 1,500원 ☎ 505-5995</p>	<p><b>19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p><b>시립무용단 토요일상설무대 Dance Concert of Saturday</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032-420-2788</p> <p><b>아동극 &lt;신밧드의 모험&gt;</b> 한중문화관 / 오후 2시</p>	<p><b>20 인천시립극단 &lt;불멸의 처&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1만5천원, 1만원 ☎ 032-420-2790</p>
21	<p><b>22 제10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 갈라콘서트</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일반 2만원, 학생 5천원 / 세종오페라연구회 ☎ 010-7338-1962</p>	<p><b>23 봄맞이가곡과 아리아의 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2만원, 1만원 인천음악문화원 ☎ 032-429-0248</p>	<p><b>24 제17회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b> 오후 7시 30분 / 초대 ☎ 032-880-4296</p> <p><b>인천시립무용단 I DANCE 2008 &lt;천고(天告)&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032-420-2788</p>	<p><b>25 시립교향악단 브런치 콘서트</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원 ☎ 032-420-2781</p> <p><b>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토요일상설무대</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 032-420-2066</p> <p><b>스트롱 아프리카 금요예술무대 흥겨운 우리가락</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032-420-2022</p>	<p><b>26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5시 / 2만원, 1만5천원 / 1만2천원 / 하늘극단 ☎ 02-338-4315</p> <p><b>토요일상설무대</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 032-420-2066</p> <p><b>스트롱 아프리카 한중문화관 / 오후 2시</b> <b>인천사랑의 부부합창단</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032-777-2341</p>	<p><b>27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5시 / 2만원, 1만5천원, 1만2천원 하늘극단 ☎ 02-338-4315</p>
					<p><b>30 라이어 3탄 (~5월11일)</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p>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라이어 3탄

〈라이어〉는 실트 없이 꼬여가는 기상천외한 상황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인물들의 쫓고 쫓기는 속도감, 반전이 거듭되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웃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성,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기막힌 상황과 대사 등 '잘 만들어진 연극(Well made play)'의 전형을 보여준다.

상황을 무마하려 한 작은 거짓말이 부풀어나서 진실이 거짓처럼 되어버리는 상황들, 그리고 공연을 보는 내내 그 상황들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삶을 단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있을법한 상황을 기발하게 무대화 한 〈라이어〉는 속사포 쏘듯 쏟아내는 수많은 거짓말들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연신 웃음을 터트리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과 같이 거듭되는 거짓말에 수없이 많은 오해들, 그 속에서 빛나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그리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웃음이 관객을 찾는다.

일시 \_ 4월 30일(수)~5월 1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 일(공휴일) 오후 3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문의 \_ ☎ 1544-2972

## Book

### 그 여자의 염장법

정숙인 著



굴포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는 정숙인의 첫 작품집 '그 여자의 염장법'이 출간됐다. 그는 2002년 『문학세계』에서 수필로, 2003년 『문학과 문학』에서 시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다. 이번에 출간한 작품집은 시와 산문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와 수필의 장르에 등단한 작가여서일까, 산문과 운문의 형식적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실험이 곳곳에 엿보인다. 정숙인의 창작기법의 특징 중 두드러진 것은 '무의식의 흐름'을 통한 자동기술법이다. 독백적 화자와 간접화법으로 진행되는 청자와의 대화가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화자와 청자의 대화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기술법은 일견 의도된 것으로 불안정한 화자와 완전무결한 대상과의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들어 두 인물은 어쩌면 야누스적인 존재인 것이다. 시공간을 자유로이 변용함과 그로테스크한 상상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학산문학사, 7천원)

# 진정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글 · 이정희 전문직여성인턴클럽 회장



최근 우리사회는 무슨 무슨 날, 무슨 무슨 족 등 다양하게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골드미스, 줌라렐라, 알파걸 등 2008년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신조어들을 접해봤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챘는가? 그렇

다. 바로 2008년 현재의 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 정확하게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دان 킨들런 교수가 쓴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이 작년 초 우리나라에 소개된 후, 모든 분야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여학생을 일컫는 '알파걸'이라는 신조어가 '알파우먼'이라는 신조어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노처녀를 가리키는 '올드미스'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우아한 독신으로 진화시킨 '골드미스' 역시 이 시대를 가리키는 트렌드다. 여성이 주도하는 이러한 트렌드는 이 두 가지 신조어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광고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조어로 'Not Old Image'에서 나온 '나오미족'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젊은 감각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을 가리킨다. 또 젊은 세대 못지 않게 외모를 가꾸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중년여성을 가리키는 '아줌마와 신데렐라'의 합성 신조어 '줌라렐라'가 있다.

이상 살펴본듯 여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가리키는 신조어들은 점점 확대 생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신조어가 방대해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언어는 그 사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는 한쪽 단면 혹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를 전체인 듯 부각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 점을 깊이 새겨 우리시대 여성을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의 이면 내지는 숨겨져 있는 모습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한다.

즉 사회 도처에서 알파걸들이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뜻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파걸이 알파우먼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

### 내 가슴에 새긴 한구절

늘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평소 습관과 행동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선불리 행동하지 말고 늘 나와 내 주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자.



### 진대제 前 장관, 도시엑스포 새 사령탑

진대제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인천엑스포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 위원장은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며, “인천에 투자하면 돈을 벌고, 방문하면 즐겁고, 체류하면 안락한 명품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 위원장의 취임으로 인천엑스포조직위원회는 안상수 시장과 진 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를 갖



추게 됐다.

진 위원장은 이미 취임 전 조직위로부터 엑스포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상하이와 윈윈(Win-win)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장관시절에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지역에 투자와 기업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매사추세츠주립대에서 전자공학 석사, 스탠포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 총괄대표이사를 거쳐 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2

### 특수목적, 인천 국제고 개교

지난 3월 4일 영종하늘도시에 인천 국제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인천 국제고는 외국 인학교나 자립형 사립고에 가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고다. 국제고는 건축비 320억원을 투입했으며, 전자철판이 설치된 교실, 시청각실, 면화실 등으로 이뤄진 본관 건물과 기숙사, 식당,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었다.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신입생 125명은 학교 성적 상위 2% 안에 드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교사 19명은 모두 석·박사 학위 소지자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2010년 무의도에 아트센터 건립

2010년 중구 무의도에 아트센터가 문을 연다. 우리시는 무의동 산 143의 1 일대 2만3천㎡ 터에 사업비 228억원을 투입해 아트센터를 짓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관광공사를 센터 건립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정했으며,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센터는 메인오라토orium, 회의실 등을 갖춘 아트센터와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며, 각종 국제교류사업과 국제회의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2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착공

우리시는 서구 가정오거리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를 잇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7.69km·6~8차로) 공사를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1~4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4공구부터 시작된다. 2공구는 가정오거리~가정택지 1.42km 구간, 고속화도로 6~8차로 규모로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된다. 4공구는 청라지구 내 2.8km 구간에 6차로로 사업비 410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10월 3공구(청라 IC 구간 1km), 내년 9월 1공구(가정오거리 구간 2.3km)를 착공해 2013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3361

### 명품음식점 ISO인증 추진

우리시가 명품음식점을 고품격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인증제도(ISO 9001)를 도입한다. ISO인증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산업서비스 분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체 선정한 명품음식점 6곳에 대해 오는 6월까지 ISO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규 명품음식점은 육성위원회 심사 후 ISO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명품음식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62

###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투자유치 협력



지난 3월 17일 안상수 시장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장자끄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소장에게 인천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투자유치 협력을 전달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국내 27개 EU국 대사관 및 500여 개 유럽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와 우리나라 간에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장자끄 그로하 소장은 “인천명예시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유럽과의 통상 및 투자유치를 지원해 인천이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송도 ‘친환경 도시 사례’로 소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세계초고층학회에 친환경 도시 조성사례로 소개됐다. 지난 3월 5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초고층학회 세계총회에서 ‘신생도시, 한국’이라는 주제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소개됐다. 이날 총회에는 42개국 700여 명의 친환경과 도시계획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휘트만 전 환경청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전 세계 미래에 필요한 인류 활동과 환경 간에 균형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최근 아시아 최초로 ‘친환경 도시’ LEED-ND 시범 프로젝트로 지정된 바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행

우리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악취 농도에 따른 예·경보제를 시행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오염전파 동시통보 시스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수시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주요 기업과 공사장, 군·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오존농도를 측정해 대기오염 예·경보를 발령하면 군·구는 관련 사업장을 순찰한 뒤 결과를 시에 보고해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 440-6462

### ‘2009 로봇 월드컵’ 송도서 열려

제14회 세계 로봇 축구대회(FIRA Robot World Cup)가 내년 9월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시와 세계로봇축구연맹(FIRA)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30개국, 20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인간형 로봇 경기와 11대 11경기 등 7개 종목의 로봇 축구를 비롯해 국제 로봇학회와 국제에드테인먼트 로봇전시회 등이며, 제6회 대한민국로봇대전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로봇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청라지구에 로봇랜드가 최종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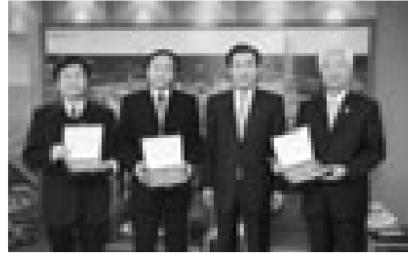
### ‘러시아의 달’ 행사 개최



지난 3월 17일 제물포구라쿠(인천시 유형문화재 17호)에서 ‘러시아의 달’ 행사가 있었다. 안상수 시장과 이바첸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어린이 합창단과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오는 6월 말까지 열리는 러시아의 달 행사에는 공연 외에도 러시아의 특산물, 서적, 예술품 등을 전시하고 러시아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상영한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시 명예홍보대사 위촉



우리는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행사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명예홍보대사는 시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관내 거주자로 부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광열 씨, 사진작가 최병관 씨, 크리스천헤럴드 한국지사장 간수웅 씨 등이 선정됐다. 이들 명예홍보대사는 내년 12월 까지 시민들에게 시책사업 및 국제행사를 홍보하게 된다.

문의 | 시 홍보관실 ☎ 440-2055

이윤호 장관, 경제자유구역 방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경제자유구역을 방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찾아 주변의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및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현황과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조성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매우 큰 프로젝트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다음달까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



우리가 인천대교와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는 인천대교 자체 매력 강화, 인천대교 조망공간 조성, 인천대교 기념·상징 공간 조성, 인천대교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이다. 사업에는 공공부문 637억원, 민간부문 522억원 등 총 1천159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권역별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치한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재개발·재건축구역, 택지개발지구,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중심상업지역 등 권역별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광고물 디자인 시안을 개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사업에 착수해 10월까지 옥외광고

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조정과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483

청라지구 농업복합산업단지 조성

청라지구에 농업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농업복합산업단지는 청라지구 내 41만1천㎡의 부지에 화훼산업, 연구시설, 물류·유통시설을 갖추고 오는 201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당초 화훼산업용지로 계획된 이곳에 연구시설, 농업지원시설, 물류·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이번 달부터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인천공항, 세계 최고공항 선정



미국의 유력 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월 5일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의하면 '국제공항이사회'가 최근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항공기 이용객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82

중구 행복한 도시대상 수상

중구가 한겨레 이코노미21이 주최하는 '해피코리아! 2008 행복한 도시대상'에서 관광·레저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구는 이번 심사에서 월미관광특구 및 차이나타운지역특화발전특구로 특화된 관광산업을 육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의 | 중구청 ☎ 887-1011

동구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 조성

우리와 동구는 단지 내 기업들과 함께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Eco Friendly Factory, 환경 친화 공장)' 프로젝트를 올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34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고, 시와 동구는 28억원을 투입해 공장의 바깥도로 등을 단장할 계획이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2008년 대청결운동

남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008년 대청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정화에 힘쓴다. 주요 정비대상은 주요도로, 고속도로 측면, 노면토사, 공원, 철로변 등이다. 구는 앞으로도 환경 취약지에 대해서 주민센터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연수구는 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고자 '2008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에 음식문화시범거리인 연수동 맛고을길의 참여업소를 늘리고,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 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숲 지킴이 동아리 결성

남동구는 숲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 '숲지킴이 동아리'를 결성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숲지킴이 동아리는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산문화 정착 등 숲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부평미군부대 생태공원 조성

부평구는 부평미군부대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3월 이러한 방안을 시에 제출하고, 이번 달 안으로 지방발전위원회에서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계양구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지난 3월 10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인식개선 사업 및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서비스를 통해 한글교육과 아동양육교육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환경시료은행 건립

2010년 서구에 환경시료은행이 세워진다. 서구 경서동 환경과학원 단지 내에 2천340㎡ 규모로 세워지는 환경시료은행은,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대별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옹진군 소청분교 5년 만에 재개교

지난 3월 6일 옹진군 소청도 소청분교가 문 닫은 지 5년 만에 재개교 했다. 소청분교는 학생 수가 줄어 2004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소청도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의 지원에 힘입어 학생 5명, 학급 2개, 교사 2명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강화군 장화리 농촌테마공원으로

강화도 장화리가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 강화군은 2012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장화리 일대 500만㎡ 부지에 산과 들, 하천, 갯벌을 연계한 낙조전망대·갯벌체험장·생태연못 등을 갖춘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교육청소식

영어 공교육, 5대 추진 전략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제시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영어 공교육의 로드맵이 선행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시교육청의 영어 공교육 강화 5가지 핵심 실천 전략은 우수 영어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및 평가, 영어 조

기교육도입, 영어 체험환경 조성, 지역계간 영어 격차 완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어교사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영어 전용 체험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다양한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영어 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 시의회 소식

#### 제163회 임시회 제·개정 조례안 8건 가결



인천시의회가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제163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2020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을 비롯해 3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 시의회 증축청사 준공



인천시의회 증축 청사 준공식이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박창규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3일 있었다. 박창규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회청사 증축동의 준공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증축청사는 연면적 4천200여㎡ 지상 6층

규모로 의회민원상담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정책연구실 등 상임위원회 관련 공간으로 활용된다.

#### 정책토론회서 시민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4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또 25일 ‘인천항 발전 모델 및 선진 항만 구축 방향 시민토론회’를, 29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5월에는 ‘성공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8월에는 ‘바람직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토론회의 활성화로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시민의 의견이 시 정책에 활발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전문대학 대책보고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김기완 시 감사관과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박사학위 취득교수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리고 가짜박사학위 취득교수 9명과 방송·언론에 보도된 교수에 대해 중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인천전문대학장은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조사한 후 시 감사관실에 해당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청과 간담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청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 6·8공구 개발, 인천대교 건설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u-city 홍보 체험관 및 복합 환승센터 기공식 등 현안 사업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산업위원들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태국 방콕시의회 의장 방인



우리시와 우호협력체결을 맺고 있는 태국 방콕시의회 의원단이 지난 3월 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타와차이 피아논타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방콕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 시의 주요사업 및 환경시설인 경제자유구역, 인천대교 건설현장, GM대우 부평공장, 인천항, 국립생물자원관 등을 둘러봤다. 두 도시의 시의회는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 행동하는 시민의 대변자

‘최선을 다 하라. 그러면 이를 것이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이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신념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오늘도 정진한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익식 시의회 홍보팀

학생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던 고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그는 이 시대의 어른이자 선생으로서 아이들 스스로 앞날을 설계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리고 이렇듯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은 현 교육 시설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12년간 잡았던 교편을 놓고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했다.

그는 바로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근학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의원 대표의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그렇듯, 그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천은 현재 과도기적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인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면 먼저 토대를 탄탄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존중하며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결코 개발논리에 밀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이 진정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려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그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 그의 진지한 눈빛과 당당한 말투에서 인천과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실제로 그는 시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추진력은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최근 인천YMCA로부터 인천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을 세우는 것은 물론, 시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인 타당성과 투명성이

전제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과 없이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옳은 바를 헤아릴 줄 아는 혜안과 가능성을 현실로 승화시키는 힘을 갖춘 시민들의 대변자. 시민을 먼저 생각하기에 당당할 수 있는 그에게서, 인천의 빛나는 미래가 투영된다. ☺



# 자전거가 달리는 녹색도시 인천

초록으로 우거진 숲과 맑은 공기 그 사이를 한가로이 달리는 자전거... 화색빛 도시를 사는 현대인들이 바라는 이상향이 아닐까. 인천시의회는 이처럼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최근 인천YMCA 조례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발의해 처리한 조례안 가운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우수 조례안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조례'로, 세계 일류 명품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으로 평가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도시인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함께 품격 있는 도시문화와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며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는 이 가운데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 🚲 자연을 위해 기꺼이 '불편해지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3분의 1가량이 대중교통이고 그중 90%를 자동차가 차지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은 자전거 이용률을 45~50%까지 끌어올리며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이 작년 5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선포해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2007 인천환경축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조례

의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작년 1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조례'를 발의, 그 해 12월 통과시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 군수·구청장,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 일반시민 등 자전거 이용 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한다. 둘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정비지침을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 셋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넷째, 지하철역·버스정류소·공원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등이다.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발족식

## 🚲 발전의 풍요와 자연의 여유를 누린다

인천시의회는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은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위원장·허식)'가 발족하면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12개 기관이 함께 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는,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용재·최만용 의원, 홍준호 시 건설교통국장, 송영달 시 도시계획국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우리시는 2008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범사업으로 중구 월미도 일주구간, 연수구 비류길, 강화 해안일주도로 등 10.97km 구간에 폭 2~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자전거 이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주력하고,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스템을 정비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전거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평가·심의하게 된다. 또 자전거 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활성화 조례안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재건축·재개발 지역, 택지개발지역 등 개발 지역에 자전거 도로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가 아무리 눈부시게 성장한들 자연이 곁에 없다면 삶은 공허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은 인천 시민의 삶을 한 차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경제발전이 낳은 풍요와 쾌적한 환경이 주는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브리핑 |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

# Anyone, Anytime, Anywhere See... Hear... Speak in English

우리는 지난해 2월 27일 전국 최초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을 선포했다. 영어를 도시 경쟁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로서 영어가 통용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어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영어 사용이 자유로운 도시,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언제 어디서나 영어랑 친구하기

영어도시 인천 만들기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을 징검다리 삼아 2020년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 2009년까지는 사업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어사용의 붐을 조성하는 해로 삼고, 2단계인 2014년까지는 영어사용 환경 인프라와 영어사용 인구를 확산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목표해인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프라와 영어상용화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해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시가 그린 밑그림이다. 우리는 영어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어사용환경 조성, 공교육혁신, 시민역량제고, 공공부문선도의 4가지 분야에서 13개 정책과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영어가 상용화되는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그 대상이다. 교육문화 Zone, 놀이문화 Zone, 위탁시설 Zone 등 블록별로 특화거리를 만들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꾸미고 '특별하지만 자연스러운' 영어상용화 거리, Fun Street를 만든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English 체험 공간과 영어상징조형물, 영어문화 거리 및 광장 등 영어생활과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English Theme Park도 구상되고 있다. 이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영어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영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착안해 4월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서도 영어 안내방송을 확대 실시한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시설에는 영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게 한다. 이외에 병원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영어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학생도, 시민도 'I Can Speak English'

공교육 혁신을 통한 영어환경 개선은 영어도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다. 우수 영어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2010년 이후에는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시가 지원한다. 4년차 이상의 영어교사들은 3년마다 최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6개월의 국내외 연수, TESOL(국제영어교사교육), 4주간의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시행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초등학교에는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시범학교가 운영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다.

그렇다고 일부 학교, 특수 계층에만 제한된 영어교육이 아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초등학교 29개를 영어체험학습 거점센터 삼아 방과 후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시의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체험하고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시민들의 영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문을 연 토크하우스(Talk House)는 올해 55개 클럽에서 520명이 참여하게 되고, 영어사용을 선도할 시민그룹과 외국어 자원봉사자, 시민외교관 등에 대한 육성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인천영어페스티벌을 활성화하며 외국인 홈 스테이, 각종 영어경시대회와 포럼을 활발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영어사용 선도 노력이 합쳐져 우리시의 영어도시 추진은 자리를 잡아가고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의 면모가 착착 갖춰지게 될 것이다. ♡



## 학원갈 시간이 없다? 사이버 영어교육은 어때요?



우리시 공무원들에 영어 열풍이 불고 있다.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영어사용을 선도하자는 의지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 50세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을 측정해 레벨을 정하고 수준에 맞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구축한 인천시공무원 전용 '사이버어학센터'다.

지난 1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버영어교육은 레벨에 맞추어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자기 주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영어회화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4개월간의 복습기간을 거친 후 10월경에 있을 수준 측정 테스트에 대비해 1개월 과정으로 영어능력말하기시험 대비 특별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시민들을 위한 사이버 영어교육도 서비스 중이다. 공무원교육원 인천사이버교육센터(<http://www.cyber.incheon.kr>)에 접속하면 초·중·고급으로 나눠 회화, 토익, 듣기, 발음, 문법 등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 그대의 삶을 디자인하라

평생학습으로 삶을 디자인하라! 우리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인천 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었다. 이제, 활력 넘치는 배움의 도시 인천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펼쳐진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국내 최초의 평생교육 전문기관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인천평생학습관(관장 이성주)이 지난 2월 20일 연수구 동춘동에 문을 열었다. 인천 평생학습관은 연면적 1만 26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2채의 규모에 현대적이고 편리한 학습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관에는 어린이자료실, 전통문화강의실, 학습동아리실 등이, 1층에는 각종 전시회가 열리는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다. 또

2·3층에는 요리강의실, 어학강의실, 미디어강의실 등 다양한 강의실과 세미나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위치한다. 특히 어린이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은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들의 감성에 맞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어린이자료실은 어린이용 도서는 물론 부모를 위한 교양도서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이 오붓하게 시간



을 보내기 좋다. 또 디지털자료실은 e-book, 사이버강좌 등 디지털콘텐츠는 물론 DVD와 위성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어 마음을 살찌우는 컴퓨터 손색이 없다.

## 93개 강좌가 모두 무료~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개발교육, 노인교육, 지역사회어울림교육, 시민교육 등 4개 분야 93개 강좌로, 시민들의 자기개발을 돕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울 직업능력개발교육은 자격취득, 전문능력개발, 직장인 재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대학과 노인학교, 은퇴 후 생활설계를 돕는 퇴직자교육 등이 마련돼 있다. 시민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어울림교육은 노인,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 정규강좌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1~3차례 열리며 현재 2천 50여 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반기 강좌를 신청하려면 접수기간에 학습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ile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사람당 최대 2개 강좌까지 들을 수 있으며, 교재비와 재료비만 부담하면 수강료는 무료다.

## 내 삶은 내가 열어간다

누구나 살아 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 꿈이 무엇인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렇듯 삶의 기로에서 있을 때 훌륭한 조언자이자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이성주 인천평생학습관 관장은 "인천 시민들이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목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단순히 평생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평생학습관은 시민을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인천의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단순히 여가선용을 위한 배움터를 넘어선 평생교육의 요람,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나를 찾고 내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디자인 하자. ♡



- 가는 길 :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다다를 수 있다.
- 개관시간 : 강의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단 어린이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은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은 휴관.
- 문의 ☎ 899-1577, 1588 | www.ilec.go.kr

## 인천평생학습관 인기강좌 들여다보기

비슷비슷한 학습강좌는 가라~ 인천평생학습관에는 '골라 배우는 재미'가 있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93개의 강좌가 마련돼 있다. 그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강좌를 들여다본다.

### • 건강예천 대단한 밥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강좌. 성인병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요리 실습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본다.

### • 와인소믈리에 전문가 과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자격증취득준비 교육 과정. 와인 관련 종사자 및 와인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와인 개론과 서빙 방법, 와인과 요리의 매치 등을 교육한다.

### • 영어로 하는 스토리텔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강좌. 엄마가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 커피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자격증취득준비 교육 과정. 커피 관련 종사자 및 커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커피의 기초, 로스팅 및 추출 이론, 메뉴 만들기 등을 가르친다.

# 불안 · 우울한 사람은 심장병 잘 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하는 말 보다는 화병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보다는 우악스러운 말이나 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중년을 지난 이후 가슴이 돌덩이에 눌린 듯 답답하거나 한번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울렁증이 생기고 진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며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때 화병(울화병)이 생겼다고 말을 한다.

최근에는 이런 화병 증상으로 내과에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바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나 편견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어 정신과에 가는 것이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인 듯하다. 화병을 오래 앓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어 심장내과를 먼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분노,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요인들이 심장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적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찰들은 의학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무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요인들이 단독으로도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처럼 심장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에는 미국 심장학회의 공식잡지인 심장학회지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도 우울증과 심장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시 다루는 논문이 실리기도 하였고, 2006년 2월에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로라 쿠바잔스키(Laura D. Kubazansky) 박사팀에서 분노, 우울, 불안이 단독으로 건강한 사람들에서 장기적으로 심장질환을 얼마나 유발시켰는지에 대한 10년 추적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도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심장병을 유발하며, 특히 분노, 불안, 우울 중 하나만 있더라도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부터 심혈관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2004년도 사망통계에서 전년도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장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은 낯설게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혈압과 혈당관리를 하듯이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여기에는 주변의 눈이 무서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정신과에 대한 방문도 포함될 것이다. 속이 편치 못하거나 기침을 심하게 해서 내과에 가는 것이나 마음이 불편해서 정신과에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인가? ♪

글 · 장홍석 인천광역시의료원 정신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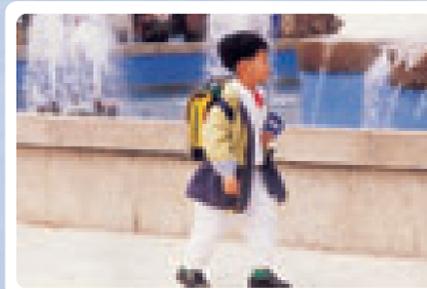
**추장원**  
**딸 아이의 봄**  
봄이 되면 모두가 설레겠지요? 지난 봄에 우리 딸과 윤중로에 놀러갔다 친구들과 꽃밭에서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몰래 찍었네요. 봄은 모두가 좋아하는 계절 맞죠?  
류용범 | 서구 당하동



**추억의 손수건 이름표**  
28년 전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학급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지금과는 달리 손수건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달던 시절이 생각한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박종형 | 남동구 구월4동



**내동생**  
천진하게 웃는 사랑스러운 동생의 표정이 정말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윤성희 | 중구 을목동



**내동생의 소풍구경**  
동생이 소풍가는 걸 구경했어요. 동생은 서울에 있는 혜원유치원을 다녔어요. 동생을 분수대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송진규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즐거운 생일파티의 추억**  
유치원 생일파티 때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중학생이 된 지금,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때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새록새록 다시 피어나곤해요.  
정선화 | 서구 가정동



**어머니와 삼형제의 사진관 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건강하실 때 가족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하는 아쉬움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드레스 카페라는 곳을 알게 돼 식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드레스를 입고 우리 삼형제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태홍 | 부평구 삼산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시스템 도시의 표본 도쿄

닭장을 연상시키는 아파트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는 전철, 어디를 가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대도시 도쿄(東京).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도쿄의 모습이다. 허나 그것이 도쿄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요, 착각이다. 걸으며 부각된 단점만도 수두룩한 도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비밀을 찾아 향해해본다.

글 · 사진 이형준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저자

1

## 하늘과 가까운 마천루 도시

최근 도쿄(東京) 도심에 찾은 방문객이라면 장기불황이란 소리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세워지는 빌딩과 명품매장에 이르기까지, 불경기와는 별반상관 없어 보이는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항구 주변이다.

JR 신바시(新橋)역 건너편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을 타자마자 시선에 잡히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빌딩숲이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상업지역에 불과했던 이 지역은 현재 세계적인 건축가 케빈 로슈가 설계한 시오도메 시오사이트를 필두로 카레타 시오도메, 마쓰시타 도쿄본사 등 최첨단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에 들어서기 시작한 빌딩군은 신주쿠, 유라쿠초와 더불어 도쿄 3대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으뜸이다. 이곳을 보노라면 파리의 기획도시 라데팡스(La Defense)가 떠오른다. 자동차도로 위에 조성된 인도와 빌딩 앞에 세워진 대형조형물, 그리고 나름대로 개성이 돋보이는 외관까지 영락없는 라데팡스다.

## 첨단문화와 휴머니즘의 공존

빌딩 숲을 빠져나온 모노레일의 차창 너머로 이어지는 풍경은 인천항과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주변 풍경이다. 커다란 창고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잘 정리된 주변은 새삼 청정국가에 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작은 창고와 어선들이 정박해있던 자리를 50·60층짜리 호텔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신하고 있는 점이다.

도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구 건너편에 조성해 놓은 오다이바(台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다이바는 후지 TV와 각종 쇼핑몰을 비롯해 고급 호텔과 박물관은 물론이고, 도요다 자동차 전시장까지 들어서 도쿄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 오다이바를 조금 벗어나면 도쿄인지 홋카이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넓은 들판을 만나게 된다.

도쿄와 서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드넓은 들판은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유별나게 아름다운 시즌은 봄이다. 화사한 꽃으로 단장한 들판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시민들은 도쿄가 절대로 삭막한 도시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1. 도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오다이바의 봄 풍경  
2. 꽃으로 단장된 오다이바 거리를 걷고 있는 연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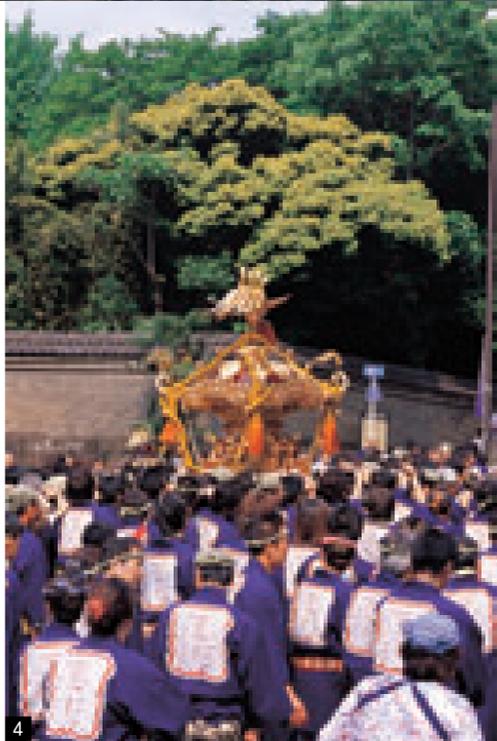
3

임해 부도심지역으로 불리는 오다이바와 도심을 오가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은 모노레일이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간직한 다리와 항구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이다. 유람선에 몸을 의지하고 도쿄 해안지역을 이동하다 보면 수많은 고층아파트를 접하게 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파트는 분명 도쿄의 장점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점은 더욱 아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은 그 나름대로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성냥갑 같은 우리네 아파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도쿄에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룩셈부르크 공원처럼 넓은 공원은 없다. 그러나 런던이나 뉴욕에 못지않게 도심에 많은 공원이 산재되어 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히비야 공원을 필두로 신주쿠, 우에노, 니시쿠치 공원 등. 도쿄 도심에 조성된 공원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행사를 여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여느 도시의 공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회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 박물관과 미술관의 천국

도쿄가 명품도시 대열에 합류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당국과 높은 시민의식을 빼놓을 수 없다.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많지만 대표적인 장소는 도심에 세워진 미술관과 박물관, 지하철, 공원, 상점가다. 도쿄에는 공원보다 훨씬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다.



4

3. 고층 빌딩과 유람선이 어우러진 도쿄 항 풍경  
4. 도쿄의 대표적인 봄축제인 간다 마츠리에 참가한 시민들  
5. 우에노 국립미술관 앞에 세워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6. 노점 헌책방을 찾은 시민이 책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도심에 자리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다 보면 스스로 눈을 의심하게 된다. 바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장들의 작품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안에 전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티켓 없이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으며 작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우에노 공원에 인접한 국립서양미술관이다. 미술관 입구에는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비롯해 '지옥문', '칼레의 시민' 등이 전시돼 있다. 천문학적인 가격대에 달하는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전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시민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헌책방거리, 매년 수천만 명 방문

한편 대학이 몰려 있는 도심 오차노미즈(お茶ノ水)지역 인근에는 도쿄가 자랑하는 명물이 있다. 바로 헌책방이다. 간다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헌책방 거리를 진보초(神保町)라고 부른다. 반경 600~700m에 이르는 진보초 고서점가를 형성하고 있는 고서점은 줄잡아 170여 곳에 이른다. 규모가 큰 책방은 5·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그마한 책방이 주를 이룬다.



매년 헌책방을 찾는 방문객은 수천만 명에 달하고 관광객과 헌책 구입으로 찾는 외국인만도 족히 십만 명이 넘는다. 도쿄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진보초의 특징이자 자랑거리는 걸로 드러난 것 외에도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록 헌책방이지만 전문화돼 있다는 점과 각기 다



6

른 방문객을 위해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다. 동서양의 역사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남해당, 건축서적으로 가득한 남양당, 법률서적을 취급하는 국제서방, 그리고 판화와 그림 서적만을 거래하는 오야쇼보, 만화와 영화 관련 헌책만 취급하는 책방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만남의 방을 마련해, 오래 거래한 단골손님과 작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도쿄가 명품도시 대열에 설 수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도심에 조성된 수많은 공원과 비교적 잘 정리된 도심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환경을 생각하는 모노레일 같은 교통시스템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당국과 높은 시민의식이다. 🍵

###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쿄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 공업, 교통의 중심지다. 일본 동쪽에 펼쳐진 도쿄만과 접하고 있으며, 황궁(皇宮)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區)의 구부(區部)로 이뤄져 있다. 면적은 2천183km<sup>2</sup>로 서울의 3배이며, 인구는 약 1천200만명이 넘는다. 이는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홋카이도의 70배가 넘는 수치다.

도쿄의 매력은 마천루가 즐비한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과 휴머니즘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고색창연한 자태의 옛 신사, 지나온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정자와 고전찻집, 신록이 우거진 공원 등은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도쿄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인천을 걷다 | 삼산동 굴포천 한바퀴

# 부평 젓줄 따라 돌고 돈다

옛부터 굴포천은 부평벌을 축축이 적시며 부평사람들 생명의 근원 역할을 해왔다. 삼산타운 한가운데를 흐르는 굴포천은 이제 주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다. 자연생태하천 공사로 새물맛이 준비에 한창인 굴포천 변을 걸어본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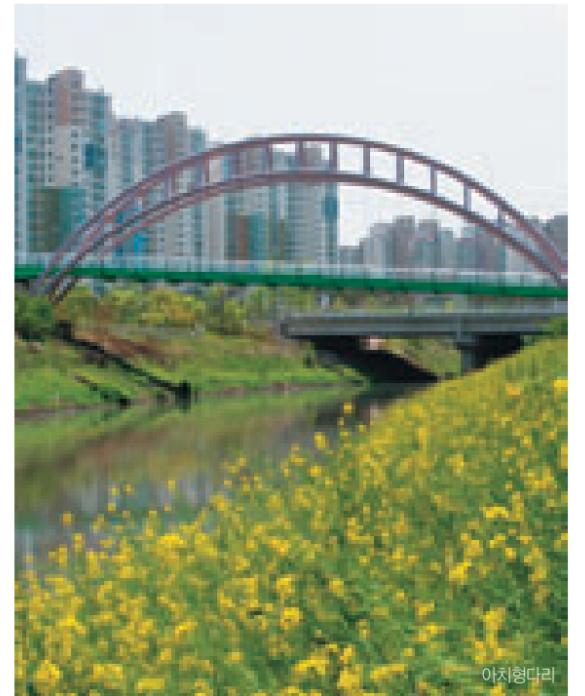
**너른** 들판 한가운데를 흐르며 땅을 기름지게 했던 부평의 젓줄, 굴포천의 발원지는 인천가족공원이 있는 금마산(해발 201m) 밑 칠성약수터이다. 이곳에서부터 졸졸 흐른 물은 부평시내와 삼산타운을 지나 동으로 굽어 친 뒤 계속 내달리다가 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연결된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삼산지구를 가로지르는 굴포천은 삭막한 도시를 시원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더없이 소중한 물줄기이다.

## ① 부평역사박물관 ~ 삼산3교 (0.3km, 6분)

이번 걷기 코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는 부평역사박물관 뒷마당이다. 박물관 옆은 민속마당, 놀이마당, 그네, 옛가옥 등이 있는 박물관공원이다.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며 워밍업을 시작한다. 산책로에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영산홍, 옥잠화, 벌개미취들이 가지개를 펴고 있다.

## ② 삼산3교 ~ 삼산4교 (0.4km, 8분)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 진행하면 굴포천을 가로지르는 삼산3교와 미끈하게 생긴 아치형다리 밑을 지나게 된다. 하천공사로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 다소 삭막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코스지만 부천 상동 방향으로 시야가 활짝 펼쳐져 있어 마음만은 시원하다. 오른쪽의 넓은 유수지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 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다. 삼산4교에서 위로 올라와 하천을 건너 북쪽 산책길로 접어든다.



아치형다리



1 | 2 | 3

1. 박물관 공원의 전통그네  
2. 하천 산책길 곳곳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다.  
3. 호젓한 산책길

### ③ 삼산4교 ~ 여울보도교 (0.5km, 10분)

영선고교 담장을 지나 신성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한다. 산책로 곳곳에는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어 노천헬스장 역할을 톡톡히 한다. 나무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별찌기를 하며 굴포천을 굽어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띈다. 아파트 끝나는 지점에 미끄럼틀이 있는 조그마한 새싹공원이 있다. 삼산3교 밑을 지나 몇 걸음 더 옮기면 운치있게 생긴 돌다리 여울보도교가 나온다.

### ④ 여울보도교 ~ 서부1교 (0.3km, 7분)

여울보도교를 지나면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철마산에서 발원한 청천천이 대우자동차를 지나 끊어질 듯 이어지며 이곳까지 와서 굴포천과 만나는 것이다. 두산위브아파트와 여울교, 영성초교를 지나면 진광교회가 나온다. 교회 뒤편 산책길에 조명이 세워져 있어 저녁에도 호젓하게 걸을 수 있는 흙길이다. 창 넓은 빌라들이 있는 곳을 지나 서부1교 위로 다리를 건너 삼산타운1단지 뒷쪽으로 간다. 다시 남쪽 산책길로 접어든 것이다.

### ⑤ 서부1교 ~ 삼산정 (0.3km, 7분)

1단지 끝나는 지점에 시냇물공원이 있다. 굴포천변에는 곳곳에 특색있는 작은 공원들이 조성돼 있어 자칫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산책길에 재미를 붙여 넣어준다. 시냇물공원은 흔들평군대, 디딤판 딛고 건너기 등 일종의 체력단련장으로 꾸며져 있다. 청천천 위에 놓여진 여울보도교를 지나면 물 갈림 지점에 우뚝 세워진 정자 하나가 나온다. 삼산정(三山亭)이다.

### ⑥ 삼산정 ~ 굴포4교 (0.3km, 8분)

바람도 쉬어 갈 듯한 삼산정에서 바라 본 굴포천의 풍치는 압권이 다. 좌(左)청천 우(右)굴포의 두물머리 형세는 한 폭의 동양화이다. 자연생태하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에서 손꼽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걸음을 삼산경찰서 쪽으로 향한다. 다른 산책길에 비해 한가한 길이다.

### ⑦ 굴포4교 ~ 부평역사박물관 (0.4km, 10분)

굴포4교 건너 7단지 프란체 뒷길로 접어들면 강바람이 노랑, 빨강 바람개비를 힘차게 돌린다. 프란체 뒷길로 해서 삼산2교를 지나 박물관 쪽으로 향하면 삼산동주민센터 뒤편에 기찻길과 철도건널목이 나온다. 조경으로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길을 벗어나 기찻길로 걸어간다. 출발했던 부평역사박물관에 도착하면서 두 하천을 넘나든 환상(環狀·고리처럼 둥근) 걷기는 마무리된다. ♪

※ 거리와 시간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짚내서 둘러보기

### 도농(都農)의 흔적 고스란히 ... 부평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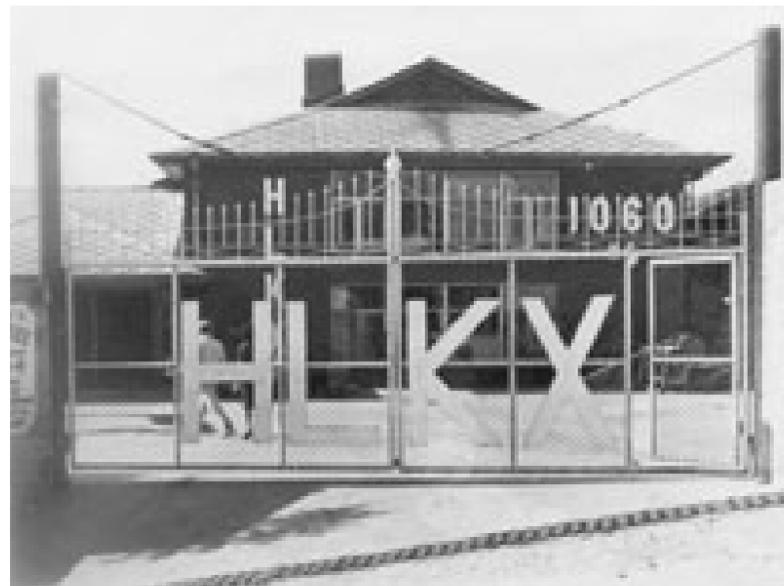
부평역사박물관은 부평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며 산업화에 밀려 자취를 감춘 농경문화의 흔적을 복원시킨 공간이다.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적인 건물에는 2개의 부평역사실과 농경문화실, 회랑,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이 마련돼 있다. 농경문화실에 들어서면 디오라마기법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사계절에 걸친 부평벌의 농사과정이 재현돼 있다. 새소리, 물소리 등을 살려 실제감을 더했으며 농기구와 농경서적 그리고 세시풍속, 민속놀이 기구를 독창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부평역사1실에는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평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전시하고 있다. 경서동도요지, 녹청자 복제품과 정조대왕 어가행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군수품 노동자의 공동주택이었던 미쓰비시 사택이 80% 축소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1900년부터 광복 전까지 사용했던 라디오, 나무냉장고, 재봉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었던 붉은 군용 수포가 전시돼 있어 지난 시간의 아픔을 진하게 전한다. ☎ 515-6472



# ‘중앙’에 밀린 방송 사각지대

세계 최초의 방송은 1920년 1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社)의 'KDKA 국(피츠버그 소재)'이 제29대 미 대통령 선거날, '하딩'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뒤, 'JODK' 경성방송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개국했다. 출력은 1kw, 주파수는 870KHz였는데, 불행히도 이 방송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나로 1924년 12월 17일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11개 민간 단체가 서울 우미관에서 공개 시험 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끝내 한국인의 방송국 설립을 불허하였고, 식민 통치의 전위 기구를 자임하고 나선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을 1927년 2월 16일 출범시켰다. 초창기 사용 언어는 일어 3, 한국어 1의 비율이어서 어느 나라 방송인지 구별조차 안 됐다. 더구나 쌀 한 가마가 15원이었는데, 동경에서 수입해 온 진공관 라디오 한 대 값이 100원이 넘는 고가여서 청취자는 극소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개국 초기 국내 라디오는 1천440대였고, 그 중 한국인 소유는 275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JODK’란 호출부호와 ‘방송(放送)’이라는 명칭도 우리 것이 아니었다. 도쿄방송이 ‘JOAK’였고, 경성방송국은 그 네 번째 돌림자인 ‘JODK’였다. ‘방송’이란 용어도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 기선 삼도환(三島丸)이 아프리카에서 ‘경고’ 무선을 수신하고, 이를 통신 일지에 ‘방송을 수신했다’고 기록한 데서 비롯된 일본 용어였다. 그렇게 알려진 ‘방송’이었지만, 개화기 때 선대들은 우리 손으로 방송을 세우고자 민간 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 노력의 하

그런 연유로 경성방송국은 청취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방송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각처를 다니며 ‘라디오 청취회’라는 모임을 개최하였고, 1927년 5월 23일 인천 ‘애관극장’에서는 방송 상식 보급을 위한 ‘방송 강연회’도 열었다. 한편, 일제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부산, 평양, 대구, 광주 등 전국 21개 지역에 방송국을 차례로 설치해 나갔다. 그러나 인천만은 예외였다. 서울과 동일한 가청권이라는 논리였다. 어쩐 일인지 광복 후까지 그 논리는 계속이어져 방송에 관한 한 인천은 인구 30여 만명 정도의 지방 소도시만도 못

전파(電波)는 국가의 중요 자산이요,  
그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파 가운데 적어도 인구에 비례한 지분이라도 인정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한 사각 지대로 놓여 있었다. 그같은 왜곡된 방송 현실에 처음 이의를 제기한 이는 임흥재 인천시장이었다. 1946년 임 시장은 ‘인천방송국 설치’를 역설하고 나섰으나 서울중앙방송국으로부터 ‘인천부청(仁川府廳)의 시간’을 할애받는 데 그쳤고, 후임 표양문 시장의 노력도 불발로 끝났다. 그 10년 뒤인 1956년, 극동지역 선교 방송인 HLKX가 학의동 갯벌 위에 송신 안테나를 세우고, 1962년에는 자유공원에 스튜디오를 개설하는 등 ‘특수방송 시대’를 열었다. 현 시립 합창단 윤학원 지휘자가 프로를 맡는 등 일정 부문 지역 문화에 기여했으나 1967년 서울 마포로 이전해 인천은 다시금 방송의 암흑기를 맞았다. 인천 지역 사상 최초로 순수 민간 방송국이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30년 뒤인 1997년 10월 11일이었다. iTV 인천방송(仁川放送)이 첫 전파를 인천 하늘에 발사한 것이다. 시민들은 TV 앞에 앉아 ‘개국 특집 뉴스’를 보며 우리도 방송국을 갖게 됐다는 자긍심과 함께 그동안의 아쉬움을 단숨에 날려 보냈다. 그러나 개국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iTV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TV 안테나를 추가로 달 필요가 없는 송출 방식이어야 하는 데도 방송위는 UHF 송출을 고집했고, 결국 iTV는 원천적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광고 시장의 잠식을 염려해 시청 권역도 인천시 일원으로 국한시켜 말이 ‘지역 방송 시대의 개막’이었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난산(難産)이었다. iTV는 메이저 방송의 프로를 재송신해 연명하는 타 지역 방송과는 달리 애초부터 운명이 달랐다. 편성권의 자율을 누리는 어엿한 ‘독립국(獨立局)’으로 출발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대한 제작비를 감당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불리해 결국 ‘부실 경영’이

라는 원천적으로 강요된 명을 지게 됐던 것이다. 전말이야 어떻든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방송’이 ‘경인방송’으로 개명하더니 결국에는 2004년 12월 ‘방송 정지’라는 모욕의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말아 시민들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의 정파 사건을 못내 내 일처럼 가슴 아파했다. 그 후 3년만인 2007년 12월 28일 탄생한 것이 OBS 경인방송이었다. 일단 환영해 마지않았으나 시청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국은 했다는데, 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방송위의 허가 내용이 과거 iTV 인천방송 시절과 원천적으로 달라진 게 없었고, 결국 각 가정에서 돈을 들여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거나 케이블 TV에 의지하지 않으면 시청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전파(電波)는 국가의 중요 자산이요, 그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파 가운데 적어도 인구에 비례한 지분이라도 인정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시청자의 권리보다 메이저 방송의 독점적 지위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아닌 다음에야 ‘TV로 시청할 수 없는 TV 방송’을 개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렇듯 270만 인천 시민은 방송에 관한 한 ‘비원(悲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방송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이다.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처럼 지역 방송을 규제의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메이저 방송의 전파는 인천하늘을 뒤덮어도 인천의 전파는 서울하늘을 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 다매체 방송 시대가 된 것이다. ♪

# 아내가 남편명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남편의 책임

**Q** 저는 얼마 전 갑자기 갑으로부터 자신에게 빌려간 1천 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갑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빌리면서 저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는 빌린 돈은 모두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저는 소장을 받기 전까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A** 본래 남에게서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 등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금전지불은 부부 중 어느 쪽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예를 들어 일상생활을 위한 식품, 의류, 의료, 교육, 주거, 오락, 가구, 집기 등에 드는 비용은 부부라는 협동체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구입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한 것이더라도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일상가사대리로서 다른 일방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는 애매한 경우가 많

습니다. 이에 그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서 처의 일방적인 금전차용 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그러나 처가 귀하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1천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란 일심동체라고들 하지만, 법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으니, 부부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글 · 김미영 변호사 (로펌 로시스 ☎ 861-5511)



# '소방안전'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인천 기업의 CEO이면서 남동의용소방대의 소방대장으로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고춘자 씨. 그녀는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미덕에 여걸(女傑)다운 기개와 풍모를 갖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고춘자 씨의 타이틀은 화려하다. 인천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업인 (주)홀리랜드 테크놀러지의 CEO,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부의 총무이사, 남동의용소방대의 소방대장 등이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수석이다. 1990년에 세워진 (주)홀리랜드 테크놀러지는 송도로 이전한 미사일기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인천 내 굵직한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의 유망 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여성 의용소방대장이라는 타이틀이다. 경쟁으로 첩첩(疊疊)진 세상에서 여성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을 텐데, 그녀는 서슴지 않고 봉사의 길을 택했다. "인천지역에서 20년 가깝게 사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소소하게나마 봉사활동을



을 해오던 중 '좀더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보면 어떨겠느냐'는 지인의 권유로 의용소방대를 맡게 됐습니다." 의용소방대란 소방공무원들

의 화재 진압과 예방업무를 돕는 무보수 봉사단체로, 고춘자 씨가 이끄는 남동의용소방대는 지난해 12월 21일 본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봉사에 첫발을 내딛었다. 소방대에는 남·여 본대를 비롯해 만수, 구월, 서창, 간석 등 4개 지역대 총 16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남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삶을 꾸려가는 지역 주민들로, 자신이 뿌리내린 터전에 사랑을 퍼트리고자 손과 손을 맞잡았다. 남동의용소방대의 대원들은 현재 화재진압과 응급처치를 교육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안전을 홍보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등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랑스러운 기업인이자, 이런 바를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현명한 노블레스, 고춘자 씨. 활짝 웃는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다. ♪

## 고춘자 의용소방대장이 전하는 화재 예방 및 발생시 행동 요령

- 난방기구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친 제품으로 구입한다.
- 난로를 켜 채 이동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난방기구를 끄고 잔다.
- 난방기구 사용 중에는 기름을 넣지 말고, 급유를 할 때 땀진 기름은 반드시 닦아낸다.
- 번개가 심한 날에는 컴퓨터와 TV 등을 켜지 않는다.
- 소화기 사용방법(핀을 뽑는다 → 방출구를 아래로 향한다 → 손잡이 위 레버를 꼭 움켜쥐다 → 불 아랫쪽에서 비를 쓸듯 엮어나간다)을 익혀 둔다.

- 화재 발생 신고(119) 시 주소나 찾기가 쉬운 주변 건물 이름과 위치 등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알린다.
- 화재 초기, 평소 습득한 방법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을 한다.
- 화재 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추고 짧게 숨을 쉬며 대피한다.
- 지하철 이용 시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철 양쪽 선로로 대피한다.

# 환불을 안해준다고요? 따르릉~ 전화하세요



부평에 사는 A씨의 딸 B양(17세)은 부평역 부근에서 피부검사를 무료로 해준다는 영업 사원에게 이끌려 49만8천원어치 화장품을 사들고 들어왔다. A양이 얼마간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됐다. 아버지 A씨는 판매업체에 구입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속 회피하고 환불을 지연했다. A씨가 도움을 청한 곳은 우리시 소비생활센터. 센터는 민법에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중재를 했다. 소비자가 상당량의 화장품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반품하기로 사업자와 합의하게 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물건을 사고파는 시대가 아니라 홈쇼핑,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새로운 판매방법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시가 '소비생활센터'의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4월 21일. 어느덧 개소 5주년을 맞았다.

## 소비자 상담에서 구제까지

구월동 씨티은행 20층에 자리 잡은 인천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시가 설치한 곳이다. 센터는 지난 2003년 4천108건의 상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2만7천657건의 소비자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벨은 설새 없이 울린다. 하루평균 50~70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 센터에는 우리시의 전담직원을 비롯해 소비자관련 시민단체에서 파견을 나온 전문 상담원 2명과 자원봉사자 등이 소비자의 하소연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센터는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구제 중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는 것이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록희 씨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싼 값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소비자에게 입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의 비슷한 피해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하면 센터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피해사례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또 전문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과 협력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센터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아파트 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유형과 사례, 소비생활 상식에 대해 교육하는가 하면 노인들에게는 노인을 기만하는 상술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연평면에서 열린 이동소비생활센터 소비자 교육



아파트단지에서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하는 이동소비생활센터

을,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등 계층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소비자 교육으로 권리 찾고 피해 예방

이동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용진군 연평면처럼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되기 쉬운 섬 주민들을 위해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를, 아파트단지에서는 가전제품 무상수리와 함께 소비자 교육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이 접수됐다. 많은 소비자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채널과 요금 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고객센터의 불친절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 센터는 우리시의 5개 유선방송사 권역별 가입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종합유선방송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종합유

선방송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심히 발로 뚫 덕분에 지난 2004년에는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2006년에는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어느 지자체의 센터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센터는 개인에 대한 피해구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등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 센터가 있어 든든하다. ♪

**Tip | 소비자 보호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팩스, 서신, 홈페이지 (<http://consumer.incheon.go.kr>),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문의 |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27번지 씨티은행 20층 ☎ 442-9872(고발처리), 팩스 : 442-9873)**

## 특수거래 소비자 안전수칙

- |  |  |
|--|--|
| <p><b>■ 사기성 인터넷 쇼핑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업체가 시·군·구에 등록된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li> <li>· 해당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주소,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li> <li>·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물은 주의한다.</li> <li>·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물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li> <li>·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추첨식 경매 등)을 사용하는 쇼핑물은 소비자의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유도하여 단기간에 다수 소비자를 유인하려는 것이므로 주의한다.</li> <li>· 일반 쇼핑물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1주일 이상) 쇼핑물은 주의한다.</li> </ul> | <p><b>■ 방문판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구입 여부는 천천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li> <li>· 공무원 등 공공기관 사람들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li> <li>·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li> <li>· 신용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li> <li>· 물품 구매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li> <li>·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제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li> </ul> |
|--|--|

### 꽃 중에 꽃 무궁화

일제 36년을 지내던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꽃 무궁화를 가꾸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였던가! 남궁억 선생께서는 뽕나무 묘목을 가꾸는 사이에 무궁화를 섞어서 가꾸어 보급하였다는 이야기는 애국심에 대한 모범이다. 얼마 전 우리 인천시에서도 무궁화 전시회를 열어 나라사랑의 실천운동을 선양했다. 무궁화는 씨로 심어 가꾸는 경우와 꺾꽂이로 가꾸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꺾꽂이는 우선 좋은 품종의 무궁화나무를 선택해 지난해 꽃을 피웠던 가지를 있는 5~6개 길이로(가위로) 자른다. 4각 화분에 깨끗한 모래를 담아 준비한 무궁화나무를 45도로 기울여 있는 2~3개가 모래에 묻히게 꽂아서 물을 충분히 적셔 준 다음 투명한 비닐로 씌워서 따뜻한 창가에 두면 한 달 후에는 잎눈에서 새싹이 나온다. 계속 물을 주고 가꾸면 6월이 지나면서 새 가지가 자라고 무성해지는 7월이 되면 작은 화분에 약한 거름흙을 담아서 모종을 한다. 8월 한 달만 잘 가꾸면 9월에 꽃망울을 보여 준다. 늦어도 10월에는 아주 작은 화분에서 놀랍게 큰 무궁화 꽃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반갑고 신기한지... 내가 어린이들과 생활했던 마지막 10년은 이렇게 아기 무궁화를 가꾸어 여름 방학식날 모든 어린이에게 선물하여 개학 후에 꽃을 피운 이야기를 듣는 행복한 교사였다. 퇴직 후에는 무궁화를 은사님 산소나 조상님들의 산소에 심어 드렸는데 지난 추석에는 장인 장모님 산소에 성묘 갔다가 접시만큼이나 큰 무궁화 한 송이가 나를 반겨주어서 예전에 어른들이 나를 반겨주신 것 이상으로 감동했다. 올 가을에는 은사님께 성묘 가서 또 그런 감동을 기대한다. 이런 행복감을 저 혼자 만끽하는 욕심쟁이가 될까봐 이렇게 알려드린다. 이 좋은 4월이 지나기 전에 꼭 해보시길.

김종진\_남구 용현4동



### 송알송알 조팝꽃

마치 이 세상의 막바지인 것처럼 더 들어갈 곳이 없는 고향마을. 눈 녹은 이른 봄의 양지쪽은 온통 조팝나무 차지였다. 성미 급한 버들개지보다도 서둘러 하얀 꽃 무더기를 이루어서 멀리서도 온 동네가 환했다. 좁쌀처럼 작은 꽃들이 잎보다 먼저 가드란 가지에 가득 피고 그 가지들이 서로 엉키며 커다란 덩불을 만들어서 온통 희디 흰 꽃장판을 만든다. 이 세상의 어떤 순백색으로 그 깨끗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조팝나무는 반듯하거나 쓸만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산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것 외엔 나무 축에도 못 들며 사철 천덕꾸러기로 지내는 신세다. 싸리나무처럼 생겼지만 워낙 보잘 것 없어서 빗자루를 매긴 커녕 땀감으로조차 쓰이지 못하는 데다 논밭두

렁 관리에 거추장스럽거나 할 뿐이니 낮으로 싹싹 베거나 불을 질러 태워버리면 약착같이 지켜낸 뿌리로 새순을 내서 이듬해 봄에 여전히 꽃을 피운다. 조팝나무는 그 이름부터가 애잔하고 가슴시리다. 얼마나 배를 곯았으면 이른 봄에 핀 꽃을 푸짐한 조밥에 비유했을까. 모두들 올해만큼은 저 조팝꽃처럼이나 풍성한 가을을 꿈꾸며 밭고랑마다 새 씨앗을 정성들여 묻었고 또 한해 희망을 걸어보았으리라. 작년 봄, 새로 이사 온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보니 근처 공원 귀퉁이가 온통 하얗다. 궁금해서 다가가자 아! 수십 년 전에 보고 잊었던 조팝꽃 아닌가. 깊고 깊은 산골 언덕비탈에나 꼭꼭 숨어서 피던 수줍고 눈물겨운 꽃들을 대도시 북판으로 옮겨다놓은 것이다. 아니, 떠나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나를 꽃들이 대신 찾아 왔는지도 모른다. 반갑다. 조팝꽃!

진상용\_부평구 삼산동

### 할미꽃

다소곳 고개 숙이고 / 하얀 솜털 쌓여서  
미소 짓는 저 할미꽃은 / 내 어머니 무덤가에서

“나 여기 있다 보아라” / 어머니의 혼령이  
저 세상에서 오셔서 / 한번 둘러 보시나봐

4월의 하늘은 맑고 / 흰구름 떼 두둥실 떠나네  
죽은자들의 마을에는 / 비석만 서 있고

윤달의 전설은 / 떼 입히러 온 가족들  
하얗게 모이고 / 웅기종기 앉아서 도시락 잔치하네

말없이 흔들리는 / 큰나무아래는 파릇파릇 새싹이  
이 봄에 다시 사는데 / 한번 간 어머니는 볼 수 없네

빨간 할미꽃 고개 숙이고

김하주\_남구 학익2동



### 나에 살던 고향은

‘나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 기억저편 아련히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다. 미경이, 연숙이, 연희, 미원이, 그리고 나. 산골마을의 동갑내기 친구들... 다들 잘살고 있겠지. 아침 등교 길이나 하교 길을 우린 언제나 같이 다녔다. 읍내에 있는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일단 짙레꽃으로 허기진 배를 살짝 달래고 아카시아 꽃을 가방 한 가득 채우고 나면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우리들은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자지러진다. 하루 종일 친구들의 입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따온 아카시아 꽃이 교실 가득 향기를 채우고 더불어 우리들 배도 채우고... 진달래가 만발하는 4월이면 누가 더 예쁜 진달래를 꺾어오나 시합도 한다. 꽃잎을 따 입에 넣는 순간 새콤하게 퍼지는 진달래 향기... 정말 일품이다. 그때 그 맛을 다른 어떤 맛에 비교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우리가 산 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진달래 꺾으러 다니는 아이들만 잡아가 간을 빼먹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셨다. 장난기가 발동한 누군가가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면 우리들은 진달래꽃도 잊은 채 단걸음에 산을 내려와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순진무구한 아이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코스모스 꽃을 따 빙글빙글 돌려 다리 밑으로 던지면 물살 따라 떠 내려가는 꽃잎들. 산골마을에서 살았던 하루하루는 한 쪽의 수채화요 한 컷의 영화다. 그때 지긋지긋하게 산골마을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젠 그리워진다. 도심에선 꽃을 보고 싶으면 화원으로 달려가야 하고 아카시아 향이라도 맡고 싶으면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 그나마 난 행복하다. 집 앞에 공원이 있어 가끔씩 푸르름을 가슴에 담고 올 수 있어서...

박서현\_남동구 간석동

### 아버지가 심으신 국화

슬하에 3녀 1남을 두시고 교직에 몸담으셨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고 꼼꼼하셨다. 거동이 불편하시던 어머니를 부축해서 가끔 산책을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아코디언과 기타를 치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흘러간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 하셨다. 아버지는 학교에 근무하시느라, 어머니는 4남매를 키워 짝 찾아주시느라 바쁘셔서 두 분만 오붓하게 지내지 못하셨는데 아버지가 정년퇴임 하시고 여유가 생기니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봐주시면서 틈나는 대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를 가꾸셨다. 묘판을 만들어 국화를 꺾꽂이해 뿌리가 내리면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화단에 빙둘러 옮겨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신 덕분에 가을이 되면 노란국화 하얀국화가 활짝 피었다. 아파트를 드나드는 아주머니들은 208호



할아버지가 가꾸신 국화가 참 예쁘다고들 했다.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국화는 방긋 웃으며 아파트화단을 지켜준다. 아버지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여러해살이 국화를 심어 오래오래 볼 수 있게 해주셨나보다. 국화꽃을 보면 아버지를 뵈듯 반갑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큰 딸 원옥 올림

조원옥\_강화군 선원면

### 꽃을 기다리는 마음

이제는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어느새 바뀐 화사한 옷차림에서도 느낄 수 있고 화원 앞에 내놓은 화분과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꽃에서도 느낄 수 있다. 뉴스에서도 며칠부터는 꽃소식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한다. 봄이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며 뛰는지 모르겠다. 겨울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찾아온다. 세상에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 중에서는 그 수가 적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꽃을 선물하고 그녀를 꽃에 비유하며 편지도 쓰고 그녀를 위해 시를 쓰기도 한다. 사랑은 그렇게 꽃과 함께 시작한다. 매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과 함께 그녀가 떠오른다. 언제나 내 마음은 봄의 향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마음이 내 마음을 환하게 덮어주고 봄이 되면 꽃향기에 젖어들게 한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장미꽃과 그녀를 위해 꼭꼭 눌러쓴 사랑의 노래가 오늘도 떠오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면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 영숙아~ 그래서 나는 봄과 함께 꽃을 기다리고 있는 지도 모른다.

김영신\_부평구 부개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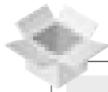


### 다음달 테마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 시정현장견학 참가자 모집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에 대한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현장과 환경 및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정현장견학을 실시합니다.

- 시기 : 4월 14일~12월(혹서기, 혹한기 제외)
- 대상 : 시민, 단체 및 학교 등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방문, 전화(시 자치행정과 ☎ 440-2447) FAX ☎ 432-0070
  - 군·구청 총무과(자치행정과, 행정자치과 등)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FAX 신청시 반드시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요망
- 선정기준 : 신청 내역을 총괄해 희망시기 및 지역·단체를 감안하여 폭넓게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유선 또는 메일, SMS(핸드폰 문자)로 개별 통보
- 운영횟수 : 매주 3~5회(주말제외)
- 출발시간 : 오후 2시(시청에 오후 1시 30분까지 등록)
- 견학지 :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 인천대교 홍보관, 청라홍보관, 시립박물관, 남동정수사업소, 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GM대우, 가스과학관 등
- ※ 세부코스는 신청서(홈페이지) 참고
-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47, 군·구 총무(자치행정, 행정자치)과

### 월미산 생태교실 운영합니다

50여 년에 걸쳐 인위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 생태계의 식생을 고이 간직한 월미산에서 '자연체험 학습의 장'을 열어 숲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나무와 야생 동·식물 그리고 푸르고 쾌적한 경관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기간 : 4월 12일~12월 27일(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 월미산 자연학습장(월미공원)
- 대상 : 인천시민, 단체, 학교 등
- 운영자 : 월미산지기 회원
- 신청방법 : 다음카페 '월미산지기' (http://cafe.daum.net/wolmizikim) 에 신청접수(예약제)

한편 '월미산 자연환경안내자(월미산지기)'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은 월미산 자연환경안내자(월미산지기)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시기 됩니다.

- 모집기간 : 3월 17일(월)~4월 11일(금)
- 운영기간 : 4월~12월
  - 기본교육 10강 이수한 자에 한해 추후 심화교육 실시
  - 매주 수·토요일(오후 2시~5시)
- 장소 : 서부공원사업소 내 강의실, 월미산 일원
- 모집인원 : 약 40명
- 대상
  - 자연안내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월미산을 사랑하는 사람
  - 향후 월미산 자연안내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
- 참가비 : 무료
- 문의 및 접수 : 시 서부공원사업소 ☎ 440-4633

### 위기청소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상담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학교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 주위에 왕따,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등으로 가정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전화 국번없이 1388로 전화주세요.
- 신청방법 : 청소년전화 1388(국번없이 1388 누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신청서 이용(www.inyouth.or.kr/동반자신청)
- 신청기간 : 수시접수·상담사례회의를 거쳐 상담자가 배정됩니다.
- 문의 및 신청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홍나미 팀장 ☎ 국번없이 1388

### 2008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열립니다

내가 쓰지 않거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 운영기간 : 4월~10월(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1시~4시) 총 10회
  - ※ 하절기(7월~8월 16일) 미개최
- 장소 : 인천중앙공원(인천버스터미널 건너편)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YWCA(인천여자기독교청년회)
- 참가자격 : 시민, 가족, 동호회, 유치원, 초·중·고생, 비상업적 일반단체
  - ※ 물품은 개인당 80점 미만으로 한정하고 상업적 판매행위 금지
- 참가신청
  - 예약신청 : 나눔장터 홈페이지(www.happynaum.com) 운영단체 홈페이지 또는 시, 군·구 관련부서
  - 현지접수 : 행사당일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준비물 : 참가물품(중·고 생활용품, 신분증)
- 상반기 월별 운영계획

일 정	월별 운영테마
4월 12일	학용품아나바다
4월 26일	도서아나바다
5월 10일	장난감아나바다
5월 24일	구두아나바다
6월 14일	우산·양산아나바다
6월 28일	휴가용품아나바다

- 문의 : 시 폐기물자원과 ☎ 440-3573

### 인천 과학문화 축제 2008 열립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인천과학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과학창의력경진대회를 비롯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행사, 문화볼거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일시 : 4월 19일(토)~20일(일) (2일간 오후 1시~6시)
- 장소 :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 참가대상 : 초중고 학생, 인천시민 누구나
- 행사내용
  - 물로켓 발사대회, 모형항공기 대회, 하노이탑옮기기, 나무 블럭쌓기
  - 과학퀴즈대회, 열기구체험, 무선자동차 헬기시연, 로봇과학 전시회 등
  - ※ 행사 참석은 무료이며 대회 시상 및 기념품 증정
-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3041~5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 ☎ 770-8926



### 토지 정보 이용하세요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토지관련 기초 정보인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 업소 등록 정보, 우리집 새주소 정보를 인터넷으로 신속·정확하게 활용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 이용방법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접속→자주 찾는 서비스→토지정보(공시지가)→새주소 안내 클릭
- 또한 2008년에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중 하나로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옥외광고물(간판)을 국제도시 품격에 맞도록 정비합니다.
- 간판정비 협조사항
  - 간판 수량의 최소화
  - 간판 크기의 축소와 입체형, 돌출형 등 형식의 다양화
  - 글씨체 및 색상의 다양화
  - 출입문 및 창문에 부착된 홍보물 제거(매물표, '땅' 표시 등)
- 접수 및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3462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모집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전·후 지원, 가사지원 및 자녀양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수행해 나갈 가사도우미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5일부터 수시접수 (1차 신청마감 : 3월 20일)
- 신청자격 : 만 35세 이상~55세 이하의 출산 및 가사경험이 있는 여성
- 모집인원 : 5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내용
  - 임신전·후 지원 : 임신전·후 여성장애인의 가사지원 및 산생아 돌보기
  - 가사지원 및 자녀양육 : 여성장애인의 자녀 돌보기(목욕, 외출 등) 및 가사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 시간 및 급여
  - 임신 전·후 지원 : 주3~5회(1일 8시간, 3개월)/1일 8시간 50,000원
  - 가사지원 및 자녀양육 : 주2~3회(1일 4시간, 3개월)/1일 4시간 25,000원
    - ※ 담당자와 협의아래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전화접수 후 방문
- 문의 :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833-3051 (담당:이세희 사회복지사)

### 인천의료원 무료검진 합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골다공증 검사**
  - 검진기간 : 4월 7일(월)~4월 11일(금)(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정형외과 1)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사항목 : 방사선 검사, 골밀도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기타사항 : 만 55세 이상에 한하며 하루 오전, 오후 각 10명씩 실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방암 검진**
  - 검진기간 : 4월 14일(월)~4월 18일(금)(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외과 2)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사항목 : 유방 촬영술 및 문진
  - 검진인원 : 100명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신분증(혹은 장애인 및 의료 급여 카드)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 사업 고민 짝~악 퍼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10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 광고료(1개월 · 컬러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백56만2천원	1백66만5천원	1백28만1천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굿모닝인천〉편집팀 (☎ 032-440-2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리검사를 통한 부부이해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성격검사를 통해 부부간의 이해와 수용의 기회를 갖고 보다 행복하고 성숙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 일시 : 3월~9월(매월 2, 4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참여대상 : 부부(매월 8쌍, 선착순)
- 내용 : MBTI, Egogram, Okgram
- 신청기간 : 3월~9월
- 문의 :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팀 ☎ 569-1547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과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시행일 : 4월 18일)
  - ※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 3개월~6개월 연장(시행일 : 6월 22일)
-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 가능한 차량)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시행일 : 6월 22일)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시행일 : 6월 22일)
- 제1종 대형 · 특수면허 취득연령 20세에서 19세로 완화(시행일 : 6월 22일)
- 문의 : 운전면허 콜센터 ☎ 1577-1120

### 2008년 산업보안 집중단속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로부터 안전해야 국가경쟁력이 커집니다. 기업도산의 위기까지 불러오는 핵심기술 유출, 산업기술 보호는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입니다.

- 집중단속 기간 : 3월 1일~6월 30일
- 산업보안 신고 : 국번없이 112, 113
-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 433-0112, 인천남동경찰서 ☎ 469-5003

###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선거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공명선거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유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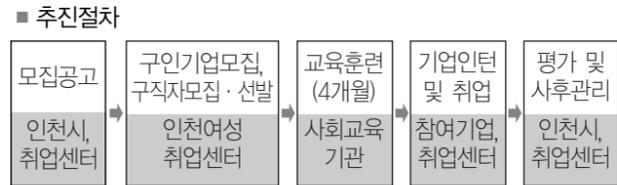
※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다과나 선물을 받아도 50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불법선거운동 신고는 국번없이 112
- ※ 아울러 억울하게 당했던 피해, 생계를 침해한 부조리, 고리대금, 불법채권추심, 전파이용 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은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지능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 433-0112, 인천남동경찰서 ☎ 469-5016

### 맞춤형 One-Stop 취업지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우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One-Stop 취업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 One-Stop 취업지원 프로젝트란?
  - 경력단절 구직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교육 → 기업인턴(4개월) → 취업확정 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취업지원



- 교육훈련(전액무료 과정)
  - 전산 경리 실무자 과정, 컴퓨터 설계 과정(CAD/CAM)
    - 모집기간 : 3월 17일(월)~4월 4일(금)
    - 교육기간 : 4월 14일(월)~8월 13일(수)
  - 광고 디자인 과정
    - 모집기간 : 3월 17일(월)~4월 18일(금)
    - 교육기간 : 5월 1일(월)~8월 29일(금)

- 모집대상
  - 구인기업 :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구직여성 : 인천광역시 거주 30세 이상 45세 미만 구직여성 중 직업훈련 교육 후 취업의사가 확실한 여성

- 교육 후 인턴과정 : 90일(인턴쉽 기간)
-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월 30만원 지원(1일 8시간 근무기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인천여성취업센터(구월동 한국씨티은행 14층) 방문,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441-2458) 접수
- ※ 인천여성취업센터(www.iwwc.or.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

- 제출서류 : 구인기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구직여성(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인천여성취업센터 ☎ 441-2456, 시 여성정책과 ☎ 440-2714

### 인천시티투어 관광코스 시간표

■ 시내 코스 시티투어는 연중무휴로 운행됩니다. 매일 4회 운영(2시간 배차, 3시간 10분 소요)

순서	승강장	1회	2회	3회	4회	순서	승강장	1회	2회	3회	4회
1	인천역(출발)	10:00	12:00	14:00	16:00	13	송도컨벤시아 (국제컨벤션센터)	11:05	13:05	15:05	17:05
2	파라다이스호텔 한중문화관	10:01	12:01	14:01	16:01	14	송도 갯벌타워	11:06	13:06	15:06	17:06
3	월미도	10:05	12:05	14:05	16:05	15	소래포구	11:36	13:36	15:36	17:36
4	인천항(갑문)	통과				16	남동구청	11:46	13:46	15:46	17:46
5	월미전통정원 (월미산)	10:20	12:20	14:20	16:20	17	인천대공원	11:51	13:51	15:51	17:51
		통과				18	물홍보관	11:54	13:54	15:54	17:54
6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10:29	12:29	14:29	16:29	19	로얄관광호텔(개성시장)	12:06	14:06	16:06	18:06
		통과				20	인천광역시청	12:15	14:15	16:15	18:15
7	연안종합여시장 (해수탕)	10:36	12:36	14:36	16:36	21	종합문화예술회관	12:25	14:25	16:25	18:25
		통과				22	인천터미널	12:27	14:27	16:27	18:27
8	인스파월드	10:39	12:39	14:39	16:39	23	문학경기장 도후부청사	12:31	14:31	16:31	18:31
		통과				24	인하대학교	12:42	14:42	16:42	18:42
9	능허대	10:48	12:48	14:48	16:48	25	용현시장	12:51	14:51	16:51	18:51
		통과				26	수도국산박물관	12:58	14:58	16:58	18:58
10	상륙작전기념관 시립박물관	10:56	12:56	14:56	16:56	27	회도진공원	13:03	15:03	17:03	19:03
		통과				11	송도유원지	10:57	12:57	14:57	16:57
12	라마다 송도호텔	10:58	12:58	14:58	16:58	12	인천역(도착)	13:10	15:10	17:10	19:10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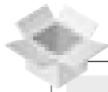
■ 공항 코스 매일 6회 운영(1시간 30분 배차, 2시간 55분 소요)

순서	승강장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순서	승강장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	인천역(출발)	9:45	11:15	12:45	14:15	15:45	17:15	11	을왕리 해수욕장	11:21	12:51	14:21	15:51	17:21	18:51				
2	월미도 (선박이용)	9:50	11:20	12:50	14:20	15:50	17:20	통과				12	왕산 해수욕장	11:25	12:55	14:25	15:55	17:25	18:55
		통과				13	북측빙조제 (갑문)	11:35	13:05	14:35	16:05	17:35	19:05						
3	구월벚터	10:15	11:45	13:15	14:45	16:15	17:45	14	삼목선착장 입구(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11:40	13:10	14:40	16:10	17:40	19:10				
4	과학상설 전시관	10:35	12:05	13:35	15:05	16:35	18:05	통과				15	영종대교 (북인천)	11:53	13:23	14:53	16:23	17:53	19:23
5	해수탕	10:45	12:15	13:45	15:15	16:45	18:15	16	국립생물자원관	12:03	13:33	15:03	16:33	18:03	19:33				
6	공항3층 (13개이트)	11:00	12:30	14:00	15:30	17:00	18:30	17	청라호수공원	12:10	13:40	15:10	16:40	18:10	19:40				
7	하얏트, 베스트 웨스턴호텔	11:03	12:33	14:03	15:33	17:03	18:33	통과				18	인천역(도착)	12:40	14:10	15:40	17:10	18:40	20:10
		통과																	
8	거잠포 입구 (무의도)	11:10	12:40	14:10	15:40	17:10	18:40												
9	마시란 해변	11:12	12:42	14:12	15:42	17:12	18:42												
10	선녀바위	11:20	12:50	14:20	15:50	17:20	18:50												

■ 테마관광 강화 코스 매주 토·일요일 1일 2회(하절기 4월~10월) 09:30~19:00(8시간 소요)

구분	시간	코스
A코스	09:30~18:30	인천역(출발) → 연미정 → 화문석박물관 → 제적봉 안보관광지 → 고인돌 → 고려궁지 → 선원사(지) → 강화역사관 → 인삼센터 → 인천역(도착)
B코스	10:00~19:00	인천역(출발) → 초지진 → 전등사 → 동막해변 → 강화갯벌센터 → 장곶돈대 → 낙조조망지 → 농경문화관 → 덕진진 → 광성보 → 인천역(도착)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5 강서관광 ☎ 772-4000



# info box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합니다

우리시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물 그 밖의 공작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개인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 11. 18. 시행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등록 예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

- 이법 시행당시인 2007년 11월 18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8년 5월 1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3462

## 행정심판법 새롭게 바뀝니다.

■ 공포일 :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18871호(시행일 : 2008년 2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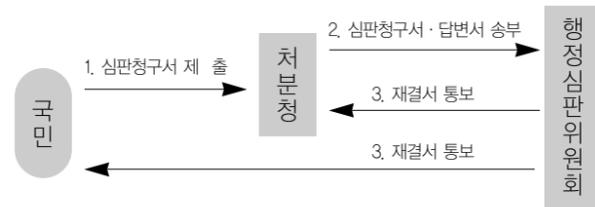
### 주요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
-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

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
-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설치

### 행정심판 처리절차



■ 문의 : 시 법무통계담당관실 ☎ 440-2297

## 인천지하철공사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천지하철공사는 4월 15일 공사창립 10주년을 맞아 '제2도약의 해 원년 선포'를 통해 명품지하철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고객을 위한 장애인 초청 견학행사 및 역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및 임직원 태안자원봉사도 추진합니다.

### 역별 문화행사

행사명	일시	장 소	내 용
창사기념 미술공연	4월 17일 18:00	부평시장역	3개팀 미술공연
음악공연	4월 18일 18:00	부평시장역	안데스 전통음악 공연
지하철 문화공연	4월 15일 18:00	인천터미널역	세계 댄스공연팀 쇼잉, 차니
로봇 경주 공연	4월 18일 18:00	인천시청역	로봇 12개 팀 공연
청소년 문화 공연	4월 19일 14:00	인천시청역	댄스, 국악, 노래 30개 팀 릴레이 공연

■ 문의 : 지하철공사 홍보팀 ☎ 451-2114

## 클릭 한번으로 노동법 공금증 해소하세요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노동법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법령을 잘 몰라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종 정부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 노동관계 규정을 알

기 쉽게 요약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이하 주요 노동관계법)' 파일을 제작해 사업주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http://gyeongin.molab.go.kr>) 팝업창에도 게시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노동법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법령을 잘 몰라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종 정부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 내용 : ① 근로자 채용·훈련·고용지원금 활용방법 ②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③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방법 ④ 근로자 차별방지와 모성보호

■ 방법 : 경인지방노동청 홈페이지 접속(<http://gyeongin.molab.go.kr>) → 왼쪽 팝업ZONE(전체보기)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클릭

■ 문의 : 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 ☎ 460-4512

## 인천관광기념품공모전 열립니다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으로 개발 장려하기 위한 제1회 인천관광기념품공모전이 열립니다.

■ 공모부문 :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한과류, 민속주 등), 관광객 주요 쇼핑품목 등 4개 부문

### 공모분야

- 일반상품분야 : 완제품
- 창작아이디어분야 : 시제품
- 출품자 :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

■ 신청서 교부 기간 : 4월 21일(월)~4월 25일(금)

■ 교부장소 : 시 관광진흥과,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새소식) 다운로드, 군·구 관광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인천관광협회

■ 작품접수 기간 : 5월 19일(월)~5월 21일(수)

■ 접수장소 : 인천관광협회(인천 남구 주안 7동 1305-4 선우빌딩 2층)

■ 출품제한 : 1인(업체)당 분야별 2점 이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참고

■ 입상작 발표 : 6월 5일(금) 시홈페이지 게재(새소식), 개별통보

■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6, 인천관광협회 ☎ 432-4590

## <굿모닝인천> 사랑을 싣고 해외로

멀리 해외에 있어서 그리운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가 있습니까? 인천경제구역 조성, 2014 아시안게임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천.

<굿모닝인천>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이 발행돼 130여 개국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인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소식을 해외에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신청하십시오. <굿모닝인천>이 여러분을 대신해 인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료, 우편요금 등은 물론 무료입니다.



■ 신청기간 : 6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e-mail [goodmorning@incheon.go.kr](mailto:goodmorning@incheon.go.kr) 또는 <굿모닝인천> 홈페이지 (<http://goodmorning.incheon.go.kr>)에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전화 032-440-2074, 팩스 032-440-2079

# Korea's First Free Economic Zone



Visitor : I would like to live in IFEZ, bu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please?

IFEZ Information : IFEZ is Korea's first free economic zone. It is a great place to live with your family and a great place to build upon your career.

Visitor : What makes it great for business?

IFEZ Information : IFEZ is centrally located in North - East Asia and this makes it ideal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business, as well as traveling. There is a major airport and seaport here.

Visitor : What about my children, will they like living in IFEZ?

IFEZ Information : Of course! IFEZ will have everything that your children will need, from schools, hospitals, sports facilities, theme parks, shopping and restaurants.

Visitor : Is it ready to live in now?

IFEZ Information : Sure! Many people already live here, however, some projects are still being developed. IFEZ plans to be completed by 2020.

Visitor : Thank you for your help, IFEZ sounds like a great place to live and work!

IFEZ Information : It is, we hope to see you here soon! Goodbye!

Visitor : Goodbye!

방 문 객 : 저는 IFEZ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IFEZ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게 정보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내 소 : IFEZ는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곳은 가족과 함께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며 또한 당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방 문 객 : 비즈니스에 좋은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 내 소 : IFEZ는 동북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행뿐만 아니라 국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데 이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IFEZ에는 주요 공항과 항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 문 객 : 저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희 아이들도 IFEZ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내 소 : 물론이죠! IFEZ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교, 병원, 스포츠 시설, 놀이공원, 쇼핑몰과 레스토랑이 들어설 것입니다.

방 문 객 : IFEZ는 지금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안 내 소 : 물론이죠! IFEZ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2020년까지 완성될 계획입니다.

방 문 객 : 감사합니다. IFEZ는 생활과 일하기에 훌륭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안 내 소 : 맞습니다. 곧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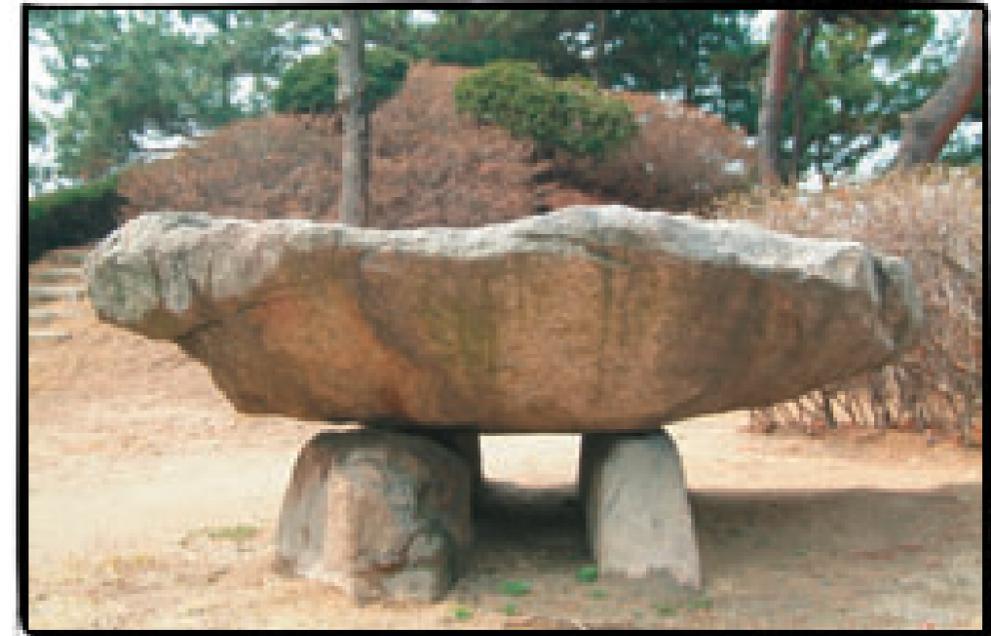
방 문 객 : 안녕히 계세요!



글 · Ryan Patrick O'Malley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was designated Korea's first free economic zone in August 2003. It is a self-contained living and business district featuring everything needed to make life comfortable and easy. It is comprised of three areas: Songdo, Yeongjong, and Cheongna. IFEZ will have air and sea transportation, a logistics complex,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leisure activities and entertainment, shopping, schools and hospitals, and financial centers. IFEZ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making it a central "hub" between all major cities in Eastern Asia. The project goal is to be completed by 2020.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에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으로 생활과 비즈니스를 위한 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며, 송도, 영종, 청라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FEZ에는 항공과 항만, 물류단지, 국제 비즈니스센터, 레저 활동과 오락, 쇼핑, 학교와 병원 및 금융 기관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IFEZ는 동북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동아시아의 모든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2020년까지 프로젝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문학산이 품은 청동기 역사

고인돌(支石墓)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학익고인돌은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당시 소년형무소) 서쪽 구릉에 있었다. 1926년 조사에 의하면 3기의 고인돌이 문학산 주변에 산재하였는데, 그 중 4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어 우리 박물관에 2기, 그리고 미추홀공원에 2기를 이전 복원하였다. 이 고인돌은 북방식으로, 덮개돌의 길이는 2,6m, 너비는 1,7m, 두께는 0.6m이다. 받침돌의 한쪽은 1개의 판돌로, 다른 쪽은 2개의 판석으로 무덤방을 조성하였으며, 막음돌은 전해지지 않는다. 무덤방에서는 민무늬토기조각, 돌화살촉, 돌칼,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인돌은 문학산 부근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현재 인천광역시기념물 제34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